

2014-OR-10

아시아 메가시티 싱크탱크 협력 체계 구축 연구 및 포럼
개최

Strategies for Building Collaborative Asian Megacity
Think Tank Network

고준호 김선웅

2014-OR-10

아시아 메가시티 싱크탱크 협력 체계 구축 연구 및 포럼
개최

Strategies for Building Collaborative Asian Megacity
Think Tank Network

연구진

연구책임	고준호	세계도시연구센터 센터장
연구원	김선웅	세계도시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김지원	세계도시연구센터 연구원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서울특별시의 정책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요약 및 정책건의

1 연구 개요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1 연구의 배경

- 급격한 도시화로 인구 500만 이상의 메가시티가 아시아에 급증
- 인구의 증가는 도시의 경제 발전과 동시에 다양한 문제를 발생시켜 도시 개발 및 관리의 중요성 증대
- 메가시티의 문제는 범위와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국제화와 함께 지역 공통의 위기로 변모
-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와 도시 정부는 다양한 형태의 싱크탱크 설립
- 개별 기관이 할 수 없는 문제 해결을 위해 다자간 연대의 필요성 증대

1.1.2 연구의 목적

- 아시아의 지역적 특수성을 반영하는 공통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할 수 있는 싱크탱크 협력 체계에 대한 근거 마련 및 모델 구축

1.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메가시티 현황 분석
- 아시아 메가시티 도시 문제 분석
-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한 접근 방식 분석
- 도시 싱크탱크 프로파일링
- 아시아 메가시티 싱크탱크 협력 체계 모델 구축
- 아시아 메가시티 싱크탱크 협력 모델 포럼 개최
- 아시아 메가시티 싱크탱크 협력 체계 모델 활성화 방안

2 주요 연구결과

2.1 메가시티 현황

- 전 세계 메가시티는 40개로 인구 1,000만 이상의 도시가 12개, 500만 이상의 도시가 28개이며, 서울은 인구 10,575천명으로 11위
- 아시아 메가시티는 26개로 인구 1,000만 이상의 도시가 9개, 500만 이상의 도시가 17개이며, 서울은 8위이고, 고도성장에 이른 도시와 발전 잠재력이 큰 도시가 공존하는 특성을 지님.

2.2 아시아 메가시티 도시문제

- 짧은 시간에 급격한 인구증가로 아시아 메가시티는 경제 성장과 동시에 자연 발생적인 위험과 인위적인 위험에 직면
 - 자연발생적인 위험 : 지진 등의 자연 재해, 수질오염, 대기오염,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그리고 방사능 위험 등
 - 인위적인 위험 : 소득의 양극화, 불안의 일상화, 사회 정의, 사회적 신뢰 등 메가시티 시민의 생활에서 나타나는 위험
- 서울은 핵폐기물과 원전이 근접하여 방사능에 대한 위험, 베이징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도쿄는 지진에 대한 위험을 가장 크게 인식하고 있어 메가시티에 따라 인식하는 위험의 정도가 상이
- 그러나 메가시티 문제의 영향은 도시의 범위를 벗어나 지역으로 확대되고 있어 아시아 메가시티들은 같은 종류의 위험을 인지하고 있으며 도시 위험을 공유

표 1 아시아 메가시티의 도시 위험 인식 정도

	서울	베이징	도쿄	평균
자연발생적 문제				
지진	3.4	3.22	4.52**	3.71
방사능 사고	3.78	2.63	3.87*	3.41
전염병	3.41	3.35	3.12	3.29
수질오염	54.88	50.51	40.93	48.71
대기오염	64.26**	64.74**	47.83**	58.95**
산업폐기물로 인한 오염	52.59	52.33	43.69	49.54
가정 폐기물로 인한 오염	60.40	58.59	45.77	54.89
소음공해	63.87*	60.33*	47.02*	57.03*
물부족	48.68	58.46	30.68	46.06
식량 오염	3.56	58.01	36.04	49.28
인위적 문제				
경쟁력 부족	2.8	3.13**	2.92	2.95
가족건강과 사고 위험	3.11*	2.96*	3.01**	3.02
생계의 어려움	3.11*	2.73	2.95*	2.92
외로움	2.5	2.14	2.39	2.34
균형개발				
중심지 개발	2.92	2.68	2.81	2.8
도시 및 지역개발	2.99 ▽	2.82*	2.87**	2.89*
수입의 안정성				
수입과 수익	3.06**	2.99**	2.71	2.92**
고용의 기회	2.95	2.81	2.75	2.83
세금 정책	3.01*	2.54	2.84*	2.79

주 : 숫자가 높을수록 심각성이 높다고 인식함.

출처 : 이창현, 2012, "Risk Society and Urban Transformation in East Asia", New Tendency of Urban Transformation in East Asia International Symposium 발표자료

2.3 아시아 메가시티의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해 아시아 메가시티는 공적개발원조 지원, 지역협력기구 나 도시결연 등의 국제 연대 가입, 그리고 지역 거버넌스 역량 강화와 싱크탱

크 설립과 같은 인력 개발 등의 노력을 함.

2.4 아시아 메가시티 싱크탱크 프로파일링

- 프로파일링의 대상은 43개 도시 싱크탱크와 16개 국제기구 및 도시 연대
 - 대상 도시 싱크탱크는 대륙별로 아시아 34개소, 유럽 3개소, 미주 4개소, 아프리카 1개소로 분포
- 도시 싱크탱크
 - 싱크탱크는 초기에 정부 내 도시계획, 건축 전문가 조직으로 시작되었고, 이후 독립 또는 조직 통합을 통해 기관으로 발전
 - 아시아 메가시티 싱크탱크는 중앙 집권적 행정 체계를 바탕으로 국가 또는 시 정부 주도로 설립
 - 유럽과 미주의 도시 싱크탱크는 국·공립 대학 내 연구소가 다수
- 국제기구 및 도시 연대
 - 국제기구는 가난, 슬럼, 위생 등 사회 문제 해결, 지방 정부 재원 지원, 지속가능성, 압축 도시 등 특정 주제를 중심으로 구성
 - 도시 연대는 정기 포럼 등으로 도시 간 우호를 맺는 수준의 한정적 역할
- 다자간 협의체의 필요성
 - 현 싱크탱크들의 양자 간 협력으로는 범위를 규정할 수 없는 메가시티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에 한계가 있음.
 - 국제기구는 특정 주제에 대한 도시의 협력을 이루어 낼 수 있으나 대다수 국제기구가 실행 가능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기보다는 최상위 목표를 설정한다는 점에서 싱크탱크의 역할과 상이
 - 도시 연대는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도시 간 우호를 맺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도시를 대표하는 기관으로 싱크탱크 참여의 교두보가 되어 주지만, 싱크탱크를 연대의 회원으로 하거나 그 주요 기능과 역할이 부각되지 않음
- 다자간 협력에서 서울의 역할
 - 서울은 인구 천만 이상의 메가시티로 세계에서 11번째, 아시아에서 8번째이며 급격한 도시화를 겪으면서도 성공적인 경제 성장을 이루어 서울의 도시발전모델을 벤치마킹하려는 수요 증가
 - 고도성장 도시와 잠재적인 도시가 공존하는 아시아 지역에서 서울은 중요한

중간도시가 되며 협력의 주도권을 갖는 역할에 적합

2.5 아시아 메가시티 싱크탱크 협력 체계 모델 구축

- 싱크탱크 간 다자간 협의체의 필요성에 대응하여 아시아 메가시티 싱크탱크 협력 체계 모델로 아시아 메가시티 싱크탱크 협의체(Megacity Think Tank Alliance, MeTTA) 창립 및 포럼 개최
- 창립 회원 기관으로 싱크탱크는 서울연구원, 베이징 성시규획설계연구원, 상하이 성시규획설계연구원, 싱가포르 살기좋은 도시센터, 호치민 개발연구원 등 5개 기관이고 국제기구 및 연대는 메트로폴리스, 시티넷, 이클레이 등 3개 기구 선정
- MeTTA는 포럼을 개최하여 회원 기관과 아시아 메가시티의 도시 문제를 공유하고, 서울선언, 회원 기관과의 향후 교류, MeTTA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정관 수립 등의 성과를 거둠.

2.6 아시아 메가시티 싱크탱크 협력 체계 모델 활성화 방안

- 협의체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회원 확대 등을 통한 외연적 확장과 내부적인 운영 등 내실화를 통한 내연적 성장으로 구분
 - 외연적 확장: 현재 8개 회원 기관을 중기적으로는 현재 기관의 파트너들 중심으로 아시아 지역의 도시 싱크탱크로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전 세계로 확장하며, 국제기구와 지역 연대와의 협력 유지
 - 내연적 성장: 활발한 인적 교류, 회원기관 간의 공동 연구, MeTTA 독립 콘텐츠 개발, 홍보물과 온-오프라인을 이용한 홍보 강화, 운영 재정 확보와 사무국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통해 내실화

3 정책 건의

- 아시아는 전 세계 10위권 메가시티 중 7개, 20위권 메가시티 중 14개가 있는 메가시티 집중지역으로 그 중요성이 높아지며, 서울은 아시아 메가시티 중 중간 도시로 도시 간 교류의 매개체가 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쟁력을 활용하여

국제적인 도시 다자간 협의체를 구성

- 전문가 집단인 메가시티 싱크탱크 협의체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지역의 문제로 확대된 메가시티의 도시 문제에 대한 공동의 해결책과 비전 제시
- 창립된 아시아 메가시티 싱크탱크 협력 체계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도시 협력을 강화하고 정책 홍보 등을 공유하는 외교 활성화

차례

I	연구개요	16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6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6
II	메가시티 현황 분석	20
1	메가시티의 정의	20
2	세계의 메가시티	20
3	아시아 메가시티	22
III	아시아 메가시티의 도시 위험	26
1	자연발생적 위험	28
2	인위적 위험	29
2.1	소득의 양극화	29
2.2	불안의 일상화	29
2.3	사회 정의	30
2.4	사회적 신뢰	31
IV	아시아 메가시티의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34
1	공적개발원조	34
1.1	양자원조와 다자원조	35
1.2	무상원조와 유상원조	36
1.3	국제기구 기금	36
2	국제 연대 가입	38
2.1	지역협력기구	38
2.2	도시 결연	43
3	인력 개발	45
3.1	지역 거버넌스 역량 강화	45

32	싱크탱크 설립	45
V	아시아 메가시티 싱크탱크 프로파일링	48
1	프로파일링 대상	48
2	도시 싱크탱크 프로파일링	50
21	주요 역할	50
22	주요 업무	50
23	도시 싱크탱크	50
24	국제 기구 및 도시 연대	50
25	아시아 메가시티 싱크탱크	51
3	다자간 협의체의 필요성	51
VI	아시아 메가시티 싱크탱크 협력 체계 모델 구축	54
1	아시아 메가시티 싱크탱크 협의체(MeTTA) 개요	54
11	명칭	54
12	정의	54
13	목표	54
14	사업	54
15	운영방식	54
16	참여 범위	55
17	기대효과	55
2	창립 회원 기관	55
21	베이징 성시규획설계연구원	56
22	상하이 성시규획설계연구원	58
23	싱가포르 살기좋은 도시센터	60
24	호치민 개발연구원	61
25	메트로폴리스	62
26	시티넷	63
27	이클레이	64
3	아시아 메가시티 싱크탱크 협의체(MeTTA) 포럼	65
10	아시아 메가시티 싱크탱크 협력 체계 구축 연구 및 포럼 개최	

3 1	MeTTA 포럼 개요	65
3 2	MeTTA 포럼 성과	67
VII	아시아 메가시티 싱크탱크 협력 체계 모델 활성화 방안	76
1	외연적 확장	76
2	내연적 성장	77
2 1	인적 교류	77
2 2	공동 연구	77
2 3	홍보 강화	78
2 4	사무국 운영	78
2 5	재정 확보	78
3	종합	79
	참고문헌	82
	부록	86
	Abstract	94

표차례

표 2-1	세계의 메가시티	21
표 2-2	아시아 메가시티	24
표 3-1	아시아 메가시티의 인구밀도	27
표 3-2	아시아 메가시티의 자연발생적 문제에 대한 인식 정도	28
표 3-3	아시아 메가시티의 자연발생적 문제(환경)에 대한 인식	29
표 3-4	아시아 메가시티의 불안에 대한 인식	30
표 3-5	아시아 메가시티의 사회 정의에 대한 인식	30
표 3-6	아시아 메가시티의 사회적 신뢰에 대한 인식	31
표 4-1	공적개발원조의 종류	35
표 4-2	ASEAN의 회원국	39
표 4-3	아시아 협력 대화의 회원국	39
표 4-4	APEC의 회원국	41
표 4-5	UN ESCAP의 회원국	42
표 4-6	지역 협력 기구 종합	43
표 4-7	서울시 자매도시 현황(14년 2월)	44
표 4-8	서울시 자매도시의 대륙별 분포	44
표 5-1	아시아 메가시티 싱크탱크 프로파일링 대상	49
표 6-1	MeTTA의 창립 회원	56
표 6-2	SUPDRI의 주요 보고서 및 간행물	59
표 6-3	CLC의 주요 보고서 및 간행물	61
표 6-4	Metropolis의 주요 보고서 및 간행물	63
표 6-5	ICLEI의 주요 보고서 및 간행물	65
표 6-6	MeTTA 포럼 프로그램	66
표 6-7	MeTTA 포럼 현장	67
표 6-8	서울 선언 전문	68
표 7-1	예상 회원 기관	77

그림차례

그림 2-1	세계 메가시티의 지역 분포(상위 20위)	22
그림 2-2	아시아 메가시티의 지역 분포(상위 20위)	23
그림 4-1	양자원조의 방법	35
그림 4-2	다자원조의 방법	36
그림 6-1	BICP의 조직 구성	57
그림 6-2	SUPDRI의 조직 구성	59
그림 6-3	MeTTA 정관(1)	70
그림 6-4	MeTTA 정관(2)	71
그림 6-5	MeTTA 정관(3)	72
그림 6-6	MeTTA 정관(4)	73
그림 7-1	외연적 확장을 통한 활성화 방안	76
그림 7-2	내연적 성장을 통한 활성화 방안	78
그림 7-3	아시아 메가시티 싱크탱크 협력 모델 활성화 방안 종합	79

I 연구개요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I 연구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연구의 배경

- 급격한 도시화를 겪는 아시아 지역에 인구 500만 이상의 메가시티가 집중
- 아시아에는 이미 고도성장을 이룬 메가시티와 발전 잠재력이 있는 메가시티가 공존
- 인구의 증가는 도시의 경제 발전과 동시에 다양한 문제를 발생시키는데 메가시티의 도시 문제는 영향력의 범위가 넓기 때문에 지역 공동의 위기로 변모하며, 특히 메가시티가 집중된 아시아는 위기에 직면
-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메가시티의 개발 및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와 시정부는 다양한 형태의 싱크탱크를 설립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개별 기관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한 지역 공동의 방안 모색이 필요
- 개별 기관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싱크탱크 다자간 연대의 필요성 증대

1.2 연구의 목적

- 아시아 메가시티가 지닌 공통적인 문제에 대응하여 공동의 해법을 제시할 수 있는 싱크탱크 협력 체계에 대한 근거 마련 및 모델 구축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메가시티 현황 분석
- 아시아 메가시티 도시 문제 분석
-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한 접근 방식 분석
- 도시 싱크탱크 프로파일링
- 아시아 메가시티 싱크탱크 협력 체계 모델 구축

- 아시아 메가시티 싱크탱크 협력 모델 포럼 개최
- 아시아 메가시티 싱크탱크 협력 모델 활성화 방안

II 메가시티 현황 분석

- 1 메가시티의 정의
- 2 세계의 메가시티
- 3 아시아 메가시티

II 메가시티 현황 분석

1 메가시티의 정의

- 대도시를 메가시티로 분류하는 기준은 인구 1,000만 명 이상의 도시¹, 인구밀도가 최소 2,000명/km² 이상인 도시² 등
- 이 연구에서는 인구 500만 이상의 대도시를 메가시티로 정의

2 세계의 메가시티³

- 전 세계의 메가시티는 총40개(2013년 기준)
- 인구 1,000만 이상인 도시는 상하이, 이스탄불, 카라치, 뭄바이, 모스크바, 베이징, 상파울루, 헨진, 광저우, 델리, 서울, 선전(심천) 순으로 12개
- 인구 500만 이상의 도시는 자카르타, 도쿄, 멕시코시티, 킌샤사, 방갈로르, 뉴욕, 테헤란, 둥관(둥완), 런던, 라고스, 리마, 호치민, 보고타, 홍콩, 방콕, 다카, 하이데라바드, 카이로, 하노이, 우한, 리우데자네이루, 라호르, 아흐메다바드, 바그다드, 리야드, 싱가포르, 산티아고, 상트페테르부르크 순으로 28개
- 중국 상하이가 인구 17,836천명으로 1위
- 서울의 인구는 10,575천명으로 11위
- 전 세계 메가시티의 평균 경제규모는 282.9억 달러이며, 인구규모 14위인 일본 도쿄가 1,210억 달러로 가장 크고, 29위인 인도 하이데라바드가 12억 달러로 가장 작음.
- 경제규모가 가장 큰 도시와 작은 도시가 모두 아시아에 위치

¹ Fred Pearce, 2006, "How Big Can Cities Get?", New Scientist, 190(2556), pp10

² Megacity TaskForce of the International Geographical Union <http://www.megacities.uni-koeln.de/documentation/>

³ <http://www.worldpopulationstatistics.com/cities/> 2013의 자료에 근거

표 2-1 세계의 메가시티

(단위 : 천 명, \$BN)

순위	도시	국가	인구	경제규모	순위	도시	국가	인구	경제규모
1	상하이	중국	17,836	516.5	21	런던	영국	8,174	452
2	이스탄불	터키	13,855	301.1	22	라고스	나이지리아	7,938	30
3	카라치	파키스탄	12,991	-	23	리마	페루	7,606	67
4	뭄바이	인도	12,478	227.0	24	호치민	베트남	7,521	36
5	모스크바	러시아	11,978	520.1	25	보고타	콜롬비아	7,468	86
6	베이징	중국	11,716	427.2	26	홍콩	중국	7,108	302.8
7	상파울루	브라질	11,377	473.0	27	방콕	태국	7,025	98.3
8	톈진	중국	11,090	308.7	28	다카	방글라데시	7,001	217
9	광저우	중국	11,071	320.4	29	하이데라바드	인도	6,810	12
10	델리	인도	11,008	167.0	30	카이로	이집트	6,759	98
11	서울	대한민국	10,575	773.9	31	하노이	베트남	6,452	19.5
12	선전(심천)	중국	10,358	302.4	32	우한	중국	6,434	144
13	자카르타	인도네시아	9,588	224.9	33	리우데자네이루	브라질	6,390	201
14	도쿄	일본	8,888	1,520.0	34	라호르	파키스탄	6,319	28
15	멕시코시티	멕시코	8,873	411.4	35	아흐메다바드	인도	5,571	65
16	킨샤사	콩고공화국	8,754	-	36	바그다드	이라크	5,402	112
17	방갈로르	인도	8,426	34.9	37	리야드	사우디 아라비아	5,188	80
18	뉴욕	미국	8,337	1,210.0	38	싱가포르	싱가포르	5,184	295.7
19	테헤란	이란	8,245	-	39	산티아고	칠레	5,013	173.7
20	둥관(둥완)	중국	8,220	124.5	40	상트페테르부르크	러시아	5,023	85

주 : <http://www.worldpopulationstatistics.com/cities/>의 2013년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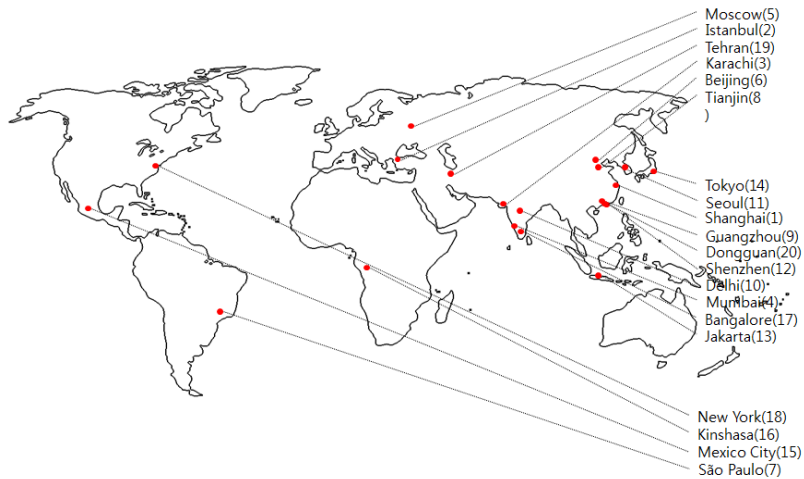


그림 2-1 세계 메가시티의 지역 분포(상위 20위)

- 대륙별로 구분하면 메가시티는 아시아 26개, 미국 3개, 유럽 2개, 아프리카 1개
- 국가별로 구분하면 40개의 메가시티 가운데 중국 도시가 8개로 가장 많고, 이어 인도가 5개, 러시아, 베트남, 브라질, 파키스탄이 각각 2개, 나이지리아, 멕시코, 미국, 방글라데시,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영국, 이라크, 이란, 이집트, 인도네시아, 일본, 칠레, 콜롬비아, 콩고, 태국, 터키, 페루, 한국이 각각 1개

3 아시아 메가시티

- 아시아 메가시티는 총 26개
- 아시아는 고도성장에 이른 도시와 발전잠재력이 큰 도시가 공존하는 특성을 지님.
- 인구 1,000만 이상의 도시는 상하이, 카라치, 뭄바이, 베이징, 텐진, 광저우, 텔리, 서울, 선전(심천) 순으로 9개
- 인구 500만 이상의 도시는 자카르타, 도쿄, 방갈로르, 테헤란, 둥관(동완), 호치민, 홍콩, 방콕, 다카, 하이데라바드, 하노이, 우한, 라호르, 아흐메다바드, 바그다드, 리야드, 싱가포르 순으로 17개
- 아시아에는 세계 10위권 메가시티 중 7개, 20위권 메가시티 중 14개가 위치하여 다른 지역보다 메가시티가 집중되어 있는 지역으로 볼 수 있음.
- 아시아 메가시티의 평균 경제규모는 264.9억 달러이며, 이것은 전 세계 도시

평균과 18억 달러 정도의 차이로 도시의 수와 더불어 경제도 아시아 메가시티에 집중되어 있음.

- 서울은 8위로 중국의 도시를 제외하면 동아시아에서 가장 큰 메가시티



그림 2-2 아시아 메가시티의 지역 분포(상위 20위)

- 국가별로 구분하면 중국이 8개로 가장 많고, 이어 인도가 5개, 베트남, 파키스탄이 각각 2개, 방글라데시,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이란, 인도네시아, 일본, 태국, 한국이 각각 1개

표 2-2 아시아 메가시티

(단위 : 천 명, \$BN)

순위	도시	국가	인구	경제규모	세계순위
1	상하이	중국	17,836	516.5	1
2	카라치	파키스탄	12,991	-	3
3	뭄바이	인도	12,478	227.0	4
4	베이징	중국	11,716	427.2	6
5	톈진	중국	11,090	308.7	8
6	광저우	중국	11,071	320.4	9
7	델리	인도	11,008	167.0	10
8	서울	대한민국	10,575	773.9	11
9	선전(심천)	중국	10,358	302.4	12
10	자카르타	인도네시아	9,588	224.9	13
11	도쿄	일본	8,888	1,520.0	14
12	방갈로르	인도	8,426	34.9	17
13	테헤란	이란	8,245	-	19
14	둥관(둥완)	중국	8,220	124.5	20
15	호치민	베트남	7,521	36	24
16	홍콩	중국	7,108	302.8	26
17	방콕	태국	7,025	98.3	27
18	다카	방글라데시	7,001	217	28
19	하이데라바드	인도	6,810	12	29
20	하노이	베트남	6,452	19.5	31
21	우한	중국	6,434	144	32
22	라호르	파키스탄	6,319	28	34
23	아흐메다바드	인도	5,571	65	35
24	바그다드	이라크	5,402	112	36
25	리아드	사우디아라비아	5,188	80	37
26	싱가포르	싱가포르	5,184	295.7	38

주 : <http://www.worldpopulationstatistics.com/cities/>의 2013년 자료

III 아시아 메가시티의 도시 위험

1 자연발생적 위험

2 인위적 위험

III 아시아 메가시티의 도시 위험⁴

- 아시아 메가시티는 짧은 시간에 급격한 인구 증가를 겪음.
- 한정된 도시의 공간적 범위에 유입되는 인구는 도시의 산업화를 가속시켜 경제 성장의 동력이 된 동시에, 다양한 문제 발생의 원인으로 작용함.
- 아시아 메가시티의 인구밀도는 1km²당 평균 6,752명으로 전 세계 상위 20개 메가시티의 평균 인구밀도인 5,129명보다 1,623명이 많음.
- 인구밀도가 가장 높은 도시는 이라크의 바그다드(26,454명/km²)
- 서울의 인구밀도는 17,479명/km²으로 세계 20위권 메가시티 가운데 가장 높음.
- 도시문제는 시민들에게 사회의 위험으로 인식되며, 크게 자연발생적인(External) 위험과 인위적인(Manufactured) 위험으로 유형화할 수 있음.⁵

4 공간적 범위를 대표적인 아시아 메가시티인 서울, 베이징, 도쿄로 함.

5 Giddens, Anthony, 1999, "Risk and Responsibility", *Modern Law Review* 62(1): 1-10.

표 3-1 아시아 메가시티의 인구밀도

(단위 : 명/km²)

순위	도시	국가	인구밀도	인구순위
1	바그다드	이라크	26,454	24
2	다카	방글라데시	19,447	18
3	서울	대한민국	17,479	8
4	아흐메다바드	인도	12,000	23
5	방갈로르	인도	11,371	12
6	테헤란	이란	11,295	13
7	하이데라바드	인도	10,477	19
8	싱가포르	싱가포르	7,540	26
9	델리	인도	7,418	7
10	홍콩	중국	6,438	16
11	선전(심천)	중국	5,306	9
12	방콕	태국	4,480	17
13	리야드	사우디아라비아	4,400	25
14	도쿄	일본	4,064	11
15	카라치	파키스탄	3,683	2
16	호치민	베트남	3,590	15
17	라호르	파키스탄	3,566	22
18	동관(동완)	중국	3,335	14
19	뭄바이	인도	2,865	3
20	상하이	중국	2,813	1
21	하노이	베트남	1,929	20
22	광저우	중국	1,489	6
23	자카르타	인도네시아	1,255	10
24	우한	중국	1,200	21
25	톈진	중국	943	5
26	베이징	중국	714	4
평균 인구밀도			6,752	

주 : 인구수는 <http://www.worldpopulationstatistics.com>(2013)의 인구 밀도 산정을 위한 자료, 도시의 면적은 각 시의 홈페이지의 공식 자료 사용

1 자연발생적 위험

- 서울은 핵폐기물과 원전이 근접하여 방사능 위험에 대한 인식 증가
- 베이징은 위생 문제로 인한 전염병 확산과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 오염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
- 도쿄는 지진에 대한 위험이 상존하고,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방사능 위험에 대한 인식이 주변 메가시티보다 큼.

표 3-2 아시아 메가시티의 자연발생적 문제에 대한 인식 정도

자연발생적 문제	서울	베이징	도쿄	평균
지진	3.4	3.22	4.52**	3.71
핵폐기물과 방사능 사고	3.78	2.63	3.87*	3.41
전염병	3.41	3.35	3.12	3.29

주 : 숫자가 높을수록 심각성이 높다고 인식함.

출처 : 이창현, 2012, "Risk Society and Urban Transformation in East Asia", New Tendency of Urban Transformation in East Asia International Symposium 발표자료

- 환경 오염의 종류에는 수질오염, 대기오염, 산업폐기물로 인한 오염, 가정폐기물로 인한 오염, 소음공해, 물부족, 식량 오염 등이 있음.
- 주요 아시아 메가시티인 서울, 베이징, 도쿄는 대기오염을 가장 위험한 도시문제로 인식
- 성장한 메가시티의 대기의 질은 관리 정책과 시민들의 노력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주변 메가시티의 영향을 벗어나기 어려움.
- 예를 들어, 서울은 대기 개선 정책으로 이산화탄소 배출이 감소하는 등의 효과를 거두었으나 중국에서의 황사, 미세먼지의 영향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음.

표 3-3 아시아 메가시티의 자연 발생적 문제(환경)에 대한 인식

	서울	베이징	도쿄	평균
수질오염	54.88	50.51	40.93	48.71
대기오염	64.26**	64.74**	47.83**	58.95**
산업폐기물로 인한 오염	52.59	52.33	43.69	49.54
가정 폐기물로 인한 오염	60.40	58.59	45.77	54.89
소음공해	63.87*	60.33*	47.02*	57.03*
물부족	48.68	58.46	30.68	46.06
식량 오염	3.56	58.01	36.04	49.28

주 : 숫자가 높을수록 심각성이 높다고 인식함.

출처 : 이창현, 2012, "Risk Society and Urban Transformation in East Asia", New Tendency of Urban Transformation in East Asia International Symposium 발표자료

2 인위적 문제

2.1 소득의 양극화

- 1997년 아시아 경제 위기부터 2008년 금융위기에 이르기까지 도시의 경제적 불균형은 심각해졌고, 구조적 경제 위기는 가족의 해체와 사회에 대한 비판으로 인한 자살률 증가의 원인으로 이어짐.

2.2 불안의 일상화

- 지나친 경쟁, 사고나 건강, 가정 경제의 어려움에 대한 불안 팽배
 - 서울과 도쿄는 가족의 건강과 사고, 그리고 경제 위기로 인한 가정 경제에 대한 불안이 가장 심함.
 - 베이징은 경쟁에서 뒤처지는 것에 대한 불안이 가장 심함.

표 3-4 아시아 메가시티의 불안에 대한 인식

	서울	베이징	도쿄	평균
경쟁력 부족	2.8	3.13**	2.92	2.95
가족건강과 사고 위험	3.11*	2.96*	3.01**	3.02
생계의 어려움	3.11*	2.73	2.95*	2.92
외로움	2.5	2.14	2.39	2.34

주 : 숫자가 높을수록 심각성이 높다고 인식함.

출처 : 이창현, 2012, "Risk Society and Urban Transformation in East Asia", New Tendency of Urban Transformation in East Asia International Symposium 발표자료

2.3 사회 정의

- 소득 수준의 차이와 불균형이 높아지면서 소득의 분배와 형평성 등에 대한 사회 정의를 문제로 인식함.
- 개발 혜택에 대해서는 중심지 개발보다 더 넓은 범위의 도시 및 지역개발에 대한 문제의식이 높았음.
- 수입의 안정성에 대해서는 서울은 세금 정책에서 불평등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았으나 도쿄와 베이징은 개발에서 생겨나는 불균형을 더욱 큰 도시 문제로 인식

표 3-5 아시아 메가시티의 사회 정의에 대한 인식

균형 개발	서울	베이징	도쿄	평균
중심지 개발	2.92	2.68	2.81	2.8
도시 및 지역개발	2.99 ▽	2.82*	2.87**	2.89*

수입의 안정성	서울	베이징	도쿄	평균
수입과 수익	3.06**	2.99**	2.71	2.92**
고용의 기회	2.95	2.81	2.75	2.83
세금 정책	3.01*	2.54	2.84*	2.79

주 : 숫자가 높을수록 심각성이 높다고 인식함.

출처 : 이창현, 2012, "Risk Society and Urban Transformation in East Asia", New Tendency of Urban Transformation in East Asia International Symposium 발표자료

2 4 사회적 신뢰

- 아시아 메가시티에서는 공공부문에 대한 신뢰가 주변인에 대한 신뢰보다 적으며, 기업, 정부, 미디어 순서로 불신이 높음.
- 서울은 정부에 대한 불신이 가장 높고, 베이징은 미디어, 도쿄는 시민 단체에 대한 불신이 가장 높음.

표 3-6 아시아 메가시티의 사회적 신뢰에 대한 인식

공적 신뢰		서울	베이징	도쿄	평균
	정부	2.9	2.21	2.79	2.62
	기업	2.81	2.53	3.05	2.78
	미디어	2.77	2.61	2.47	2.62
	시민단체	2.39	2.25	3.2	2.59
사적 신뢰		서울	베이징	도쿄	평균
	일가 친척	2.06	1.59	1.64	1.76
	친구	1.84	1.83	2.04	1.9

주 : 숫자가 높을수록 심각성이 높다고 인식함.

출처 : 이창현, 2012, "Risk Society and Urban Transformation in East Asia", New Tendency of Urban Transformation in East Asia International Symposium 발표자료

IV 아시아 메가시티의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 1 공적개발원조
- 2 국제 연대 가입
- 3 인력 개발

IV 아시아 메가시티의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1 공적개발원조

- 국제개발협력에 사용되는 개발재원은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기타 공적자금, 민간자금의 흐름, 민간 증여로 구분
 - 공적개발원조란 한 국가의 공공 부문(중앙 또는 지방정부, 정부기관 및 단체 등)이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과 복지향상을 위해 개발도상국⁶ 또는 국제기구에 공여한 자원 흐름
 - 공여의 방법은 증여와 양허성 차관으로 구분되며, 증여는 무상원조로 상환조건 없이 제공되는 현금과 물자 및 서비스를 말하고, 양허성 차관은 유상원조로 이자율, 상환기간, 거치기간 면에서 차입국에 유리한 조건으로 채무를 지는 현금이나 물자를 의미
- 공적개발원조는 전달경로에 따라 양자 간 협력과 다자간 협력으로 구분되며, 지원 자금의 상환 조건에 따라 무상원조와 유상원조로 구분
 - 원조 유형과 양식은 기술협력, 프로젝트, 예산지원, 재난복구, 식량지원, 부채탕감, 시민단체기관 및 다른 비정부기구를 통한 간접 원조를 포함
 - 다자간 협력은 수원국에 직접 자금을 제공하지 않고 세계은행, 유엔개발계획 등 국제개발기구에 대한 출자금 및 출연금을 통한 간접 지원

⁶ ODA 대상국은 원칙적으로 OECD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 수원국 리스트에 포함된 국가

표 4-1 공적개발원조의 종류

원조전달경로	상환조건	원조유형 및 양식
양자간	무상원조(증여, Grant) : 상환 의무 없음	예산지원(Budget Support) 프로젝트(Project) 기술협력(Technical Cooperation) 부채경감(Debt Relief) 식량지원(Food Aid) 인도적 지원(Humanitarian Aid) NGO에 대한 지원(General Support to NGOs) 공공-민간파트너십에 대한 기여(Contributions to public-private partnerships) 개발 인식 증진(Promotion of development awareness) 행정비용(Administrative costs)
	유상원조 (비증여, Non-grant) : 상환 의무 있음	차관(Loans by government or official agencies) - 개발사업차관, 기자재차관, 민자사업차관, 기 금전대차관, 물자차관 혼합신용 MDB협조용자(Multilateral Development Bank Co-Financing) 차관지원비 소액차관
다자간	국제기구출연(분담금) 및 출자(Grants and capital subscriptions) 국제기구에 대한 양허성 차관 (Concessional lending to multilateral agencies)	

주 : OECD/DAC에 따른 분류 및 용어임.

출처 : ODA KOREA

1 1 양자원조와 다자원조

- 양자원조는 공여국에서 수원국으로 원조자금 및 물자를 직접 지원



그림 4-1 양자원조의 방법

자료 : ODA KOREA

- 다자원조는 국제기구에 가입된 다수의 공여국의 출연금과 출자금을 수원국에 지원하는 간접 지원



그림 4-2 다자원조의 방법
자료 : ODA KOREA

12 무상원조와 유상원조

- 무상원조는 법적 채무를 동반하지 않는 현금 또는 현물의 이전으로 수원국의 상환의무가 없는 원조
- 유상원조는 법적 채무를 동반하는 현금 또는 현물의 이전으로 수원국의 상환의무가 있는 원조

13 국제기구 기금

- 기금을 운영하는 국제기구는 크게 국제연합과 국제금융기구로 구분

131 국제연합 기금

- 국제연합(United Nations, UN)은 현재 주권국으로 인정되는 세계 거의 모든 나라가 회원국인 국제 기구로 국제법, 국제적 안보 공조, 경제 개발 협력 증진, 인권 개선으로 세계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설립
- 국제연합 기금에는 국제연합자본개발기금, 국제연합인구기금, 국제연합아동기금 등이 있음.
- 국제연합자본개발기금(United Nations Capital Development Fund, UNCDF)은 빈곤 국가를 지원하기 위해 세워진 국제연합 산하의 기구로 마이크로파이낸스⁷와 지역 개발 분야로 사업을 나누며, 재정은 각국의 자발적 기여금과 각국 정부, 국제기구, 민간 분야의 협력기금으로 조달

- 국제연합인구기금(United Nations Population Fund, UNFPA)은 세계 각국의 인구 및 가족계획 분야에서 제반 조직과 능력을 향상시키고, 인구문제의 사회적, 경제적, 인권적 측면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각국에 적합한 방법으로 원조 제공
- 국제연합아동기금(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UNICEF)은 아동에 관한 장기적이고 광범위한 국제협력 계획을 수립하고 전쟁과 재난, 극심한 빈곤, 폭력과 착취에 희생되거나 장애 아동 등 소외된 아동을 위한 특별 보호 등으로 세계 각국 아동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할 수 있는 임무 수행

1.3.2 국제금융기구 기금

- 국제금융기구는 국제통화기금과 다자개발은행으로 구분되며, 개도국의 재건과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차관형태로 지원하거나 전문적인 기술협력 제공
-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은 국제금융시스템의 안정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금융기구로 국제 환거래안정을 위한 대출 및 자금지원, 회원국 거시경제시스템 감시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최빈국에 대해 저리의 양허성 대출을 제공
- 다자개발은행은 세계은행그룹(World Bank Group), 지역개발은행(Regional Development Banks, RDBs)으로 구분되며, 회원국이 납부한 출자금과 출연금을 바탕으로 개도국에 개발차관을 지원하며, 필요한 경우 프로젝트 지원이나 컨설팅에 수반되는 기술협력 방식의 무상지원
- 지역개발은행에는 아시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 ADB), 유럽부흥개발은행(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EBRD), 미주개발은행(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IDB) 등이 있음.
- 아시아 개발기금(Asian Development Fund, ADF)은 아시아 지역 개발도상국에게 짝 이자의 개발자금을 융자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금으로 아시아개발은행(ADB)의 특별 기금으로 관리·운영

7

마이크로파이낸스(Microfinance)는 빈민을 위한 무담보 소액대출을 뜻하며, 단순한 원조에서 벗어나 자립의 기회를 제공하는 의미에서 '빈곤퇴치를 위한 가장 쓸모있는 금융 발명품'이라는 평가를 받음.

2 국제 연대 가입

2.1 지역협력기구⁸

- 지역협력기구는 지역 내 협력기구와 대륙 간 협력기구로 구분⁹

2.1.1 동남아국가연합(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SEAN)

- 목표
 - 동남아시아 국가의 번영과 평화로운 공동체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공동 노력
 - 국제연합 헌장의 원칙에 기준하여 지역의 평화와 안전 수립
 - 경제, 사회, 문화, 기술, 과학 및 행정 분야에 대해 상호 지원
 - 교육, 기술, 행정, 전문 분야의 훈련과 연구 시설을 협력
 - 더 효율적인 농업, 산업, 그리고 국제 무역을 위해 공동 작업을 하고 교통과 통신시설을 향상시켜 국민의 생활수준을 제고
 - 동남아 지역에 대한 연구 촉진
 - 기타 국제기구와 지역 협력체와의 유익한 협력 관계를 유지
- 모토
 - One Vision, One Identity, One Community
- 회원국은 총 10개국
 - 한국은 ASEAN의 대화상대국이며, 한-ASEAN, ASEAN+3와 같은 기구를 만들어 긴밀한 협조를 맺고 있음.

⁸ 공간적 범위는 아시아 지역으로 한정

⁹ 본문의 211 동남아국가연합과 212 아시아 협력 대화는 아시아 지역 내 협력기구의 예이며, 213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와 214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는 아시아와 다른 지역/대륙 간 협력기구임.

표 4-2 ASEAN의 회원국

구분	해당 국가
ASEAN (10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대화상대 (10개국)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인도, EU

주 : 파푸아뉴기니는 옵저버 지위

출처 : 대한민국 외교부(http://www.mofa.go.kr/countries/regional/asean/outline/index.jsp?mofat=001&menu=m_40_70_40)

2 1 2 아시아 협력 대화(Asia Cooperation Dialogue, ACD)

- 배경 : 2000년 9월 태국의 탁신총리가 ASEAN+3 체제를 넘어 동서를 포괄하는 아시아 전체의 협력 달성을 위한 협의체를 주창함에 따라 2002년 6월에 설립
- 목표
 - 자유로운 의견, 경험 교환을 위해 비제도화된 환경 조성
 - 아시아가 역외 지역들과 더욱 긴밀한 파트너십을 맺을 수 있도록 국가적, 지역적 능력을 높이는데 일조
 - 아시아와 직접적 연관이 있는 국제 이슈 및 개발 관련 사항들에 대해 솔직한 상호의견 교환
- 회원국은 33개국이며, 아시아 지역별로 다음 표와 같음.

표 4-3 아시아 협력 대화의 회원국

지역구분	해당국가
동북아시아(4개국)	한국, 중국, 일본, 몽골
동남아시아(10개국)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미얀마,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서남아시아(6개국)	방글라데시, 부탄, 인도, 파키스탄, 스리랑카, 아프가니스탄
중앙아시아(5개국)	러시아,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중동(8개국)	바레인, 이란,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사우디, UAE, 터키

출처 : 대한민국 외교부(http://www.mofa.go.kr/countries/regional/acd/outline/index.jsp?mofat=001&menu=m_40_70_10)

- 구성 및 운영방식
 - 정책대화 : 지역 및 국제정세, 역내 협력증진 방안 등에 대해 회원국 외교 장관 간 의견 교환
 - 협력사업 : 역내 협력 강화를 위해 현재 20여개 협력 분야별로 선도국가(Prime Mover)를 지정해 협력사업 추진 등

2 1 3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APEC)

- 비전
 - 아태 공동체 설립
 - 아태 공동체 비전 달성을 위한 이행 프로세스로 APEC은 보고르 목표(Bogor Goal)로 대표되는 무역·투자 자유화(Trade and Investment Liberalization, TILF)와 함께 경제기술협력(Economic and Technological Cooperation, ECOTECH), 비즈니스 원활화(Business Facilitation, BF)를 3대 축으로 설정하여 운영
- 목표
 - 아태 지역 경제 성장과 번영
- 특징
 - APEC은 전 세계 인구의 40%, GDP의 약 52%, 교역량의 45%를 점유하는 세계 최대 지역 협력체
 - 의사결정은 컨센서스 방식을 따르며, 비구속적 이행을 원칙으로 회원국의 자발적 참여와 이행을 중시
 - 정상회의는 식사와 겸하는 등의 자유 모임 형식으로 진행되어 회의 형식보다 내실 있는 결과 도출에 역점을 둠
- 회원국은 1989년 12개국으로 출범하여 현재 총 21개국
 - 특이사항 : APEC 참가자격은 주권국가(Country)가 아닌 경제체(Economy)로 ‘국가’라는 명칭이나 국기 게양이 허용되지 않음.

표 4-4 APEC의 회원국

연도	가입국 수	가입국
1989년 (APEC 출범)	12개	한국,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아세안6개국(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싱가포르, 필리핀, 브루나이)
1991년	3개	중국, 홍콩, 대만
1993년	2개	멕시코, 파푸아뉴기니
1994년	1개	칠레
1998년	3개	러시아, 베트남, 페루
총합	21개국	

출처 : 대한민국 외교부(http://www.mofa.go.kr/countries/regional/apec/outline/index.jsp?mofat=001&menu=m_40_70_20)

2 1 4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UN ESCAP)

- 역할
 - UN 경제사회이사회(ECOSOC) 직속 5개 지역경제위원회 중 하나로 아태 지역을 포괄하는 유일한 정부 간 기구로서 역내 경제·사회 분야 개발 및 협력을 위한 중심적 역할 수행
- 목적
 - 아태 지역의 경제재건과 개발, 경제활동 수준 향상 및 지역 내 국가 간 또는 지역 외 국가와의 경제적 관계 유지·강화
 - 아태 지역 내 경제적·기술적 문제와 개발에 관한 조사 실시 및 후원
 - 경제·기술·통계 정보의 수집·평가·전파 및 후원
 - 가용한 자원 범위 내에서 지역 국가들이 희망하는 자문기능 수행
- 회원국 및 준회원국(총 62개국)

표 4-5 UN ESCAP의 회원국

구분	지역	국가
정회원국 (53)	아주지역 (24)	오스트레일리아, 브루나이, 중국, 북한, 피지,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말레이시아, 마셜군도, 마이크로네시아, 몽골, 나우루, 뉴질랜드, 파키스탄, 팔라우, 파푸아뉴기니, 필리핀, 한국, 스리랑카, 싱가포르, 태국, 통가, 베트남
	중동지역(1)	이란
	유럽지역 (10)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그루지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러시아, 타지키스탄, 터키,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최빈개도국(14)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부탄, 캄보디아, 라오스, 몰디브, 미얀마, 네팔, 동티모르, 키리바시, 사모아, 솔로몬 제도, 투발루, 바누아투
준회원국 (9)	역내비자치지역 (9)	홍콩(중국), 마카오(중국), 괌, 미국령 사모아, 쿡 제도, 폴리네시아(프랑스), 뉴칼레도니아, 니오제, 북마리아나 제도
(역외 4개국)	미주 및 유럽지역 (4)	미국,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출처 : 대한민국 외교부(http://www.mofa.go.kr/countries/regional/escap/outline/index.jsp?mofat=001&menu=m_40_70_150)

2 1 5 종합

- 세계 각국은 위치한 지역 내 기구에 가입하여 경제, 사회 등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국가를 대변하는 지역 내 합의를 통해 세계에서 영향력을 키움.
- 개별 국가나 지역보다 더 넓은 범위의 대륙 간 기구를 통해 전 세계적인 협력을 이룸.

표 4-6 지역 협력 기구 종합

구분	협력기구명
아시아	동아시아 정상 회의(동아시아 공동체·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동남아시아 국가 연합(아세안+3)·남아시아 지역 협력 연합·걸프 협력 회의·유라시아 경제 공동체
오세아니아	태평양 제도 포럼·남태평양위원회·남태평양공동체 사무국
유럽	유럽 평의회·북유럽 이사회·유럽 연합(EU)·동방 파트너십·유럽 자유 무역 연합(EFTA)·유럽 경제 지역(EEA)·중부 유럽 자유 무역 협정(CEFTA)·남동 유럽 협력 프로세스(SEECP)·민주주의와 경제 개발을 위한 구암 기구·러시아-벨라루스 국가 연합·비셰그라드 그룹
아프리카	아프리카 연합(AU)·CFA 프랑·서아프리카 경제 공동체·중앙아프리카 경제 공동체·동아프리카 공동체·남아프리카 개발 공동체·아랍 마그레브 연합
아메리카	미주 기구(OAS)·라틴 아메리카 경제기구·북미 자유 무역 협정(NAFTA)·남미 국가 연합·메르코수르·안데스 공동체·카리브 공동체·동카리브 국가 기구·중미 통합 체제·중남미·카리브 해 국가 공동체·라틴 아메리카 의회·라틴 아메리카 통합 연합(en)·카리브 국가 연합
대륙 간	아랍 연맹(북아프리카-아라비아반도)·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 유라시아-오세아니아-서아메리카)·이베로 아메리카 정상회의(남아메리카-스페인 포르투갈)·유럽 안보 협력 기구(OSCE / 북아메리카-유라시아)·북대서양 조약 기구(NATO / 북아메리카-유럽)·독립 국가 연합(CIS / 구 소비에트 연방 회원국)·유라시아 연합·경제 협력 기구(중앙 유라시아)·이슬람 협력 기구(OIC / 북중 아프리카-중동-중앙아시아)·평화를 위한 동반자 관계(동유럽-중앙아시아)·상하이 협력 기구(유라시아)·지중해 연합(유럽-북아프리카-서아시아) - 아시아 유럽 정상회의(ASEM / 유라시아) -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TPP / 유라시아-오세아니아-미국)

출처 : 대한민국 외교부(http://www.mofa.go.kr/countries/regional/acd/outline/index.jsp?mofat=001&menu=m_40_70_10)

2.2 도시 결연

- 자매도시, 우호도시는 시민의 문화 교류나 친선을 목적으로 하는 도시 관계로, 국어사전에서는 “도시 상호 간에 문화를 제후하고 그 이해를 깊게 하기 위해 친선관계를 맺은 도시”로 정의
- 자매도시와 우호도시를 구분하는 국제적인 기준은 있지 않지만 서울에서는 교류협정체결 과정에 시의회의 승인의 유/무로 자매도시와 우호도시를 구분
- 제2차 세계대전 후 미국 대통령 아이젠하워가 외교정책의 일환으로 여러 외국 도시 사이에 자매도시 결성을 장려한 후 많은 도시가 실행하였고, 한국도 이에 호응하여 주로 미국, 일본, 중국과 결연을 함.
- 도시 간 결연은 친선을 일차적인 목적으로 하지만, 이러한 관계를 시작으로 정치, 행정, 학문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공공과 민간 부문에서 깊이 있는 교류 형성

표 4-7 서울시 자매도시 현황 ('14년 2월)

연번	도시명	국명	결연일 (서울시장)
1	타이베이	타이완	68.03.23 김현옥
2	앙카라	터키	71.08.23 양택식
3	호놀룰루	미국	73.10.22 양택식
4	샌프란시스코	미국	76.05.18 구자춘
5	상파울루	브라질	77.04.20 구자춘
6	보고타	콜롬비아	82.06.14 김성배
7	자카르타	인도네시아	84.07.25 염보현
8	도쿄	일본	88.09.03 김용래
9	모스크바	러시아	91.07.13 이해원
10	뉴사우스 웨일즈	호주	91.11.08 이해원
11	파리	프랑스	91.11.12 이해원
12	멕시코시티	멕시코	92.10.05 이상배
13	베이징	중국	93.10.23 이원중
14	울란바토르	몽골	95.10.06 조순
15	하노이	베트남	96.05.01 조순
16	바르샤바	폴란드	96.06.20 조순
17	카이로	이집트	97.04.27 조순
18	로마	이탈리아	2000.03.18 고건
19	아스타나	카자흐스탄	2004.11.06 이명박
20	워싱턴D.C	미국	2006.03.13 이명박
21	아테네	그리스	2006.05.15 이명박
22	방콕	태국	2006.06.16 이명박
23	타슈켄트	우즈베키스탄	2010.07.02 오세훈

출처 : <http://economy.seoul.go.kr/archives/387>

- 서울은 1968년 타이완 타이베이와의 결연을 시작으로 현재(2014년 2월) 23개 도시와 자매도시를 맺고 있음.
- 근접한 아시아 도시가 9개로 가장 많고, 유럽이 6개, 북미, 중남미가 각각 3개, 오세아니아, 아프리카 각각 1개

표 4-8 서울시 자매도시의 대륙별 분포

아시아	유럽	북미	중남미	오세아니아	아프리카	계
9	6	3	3	1	1	23

출처 : <http://economy.seoul.go.kr/archives/387>

- 서울의 우호도시는 ① 오타와(캐나다, '97.1.10) ② 베를린(독일, '97.4.23) ③ 암스테르담(네덜란드, '99.3.15) ④ 부다페스트(헝가리, '05.7.14) ⑤ 이스탄불(터키, '05.8.24) ⑥ 로스엔젤레스(미국, '06.10.16) ⑦ 밀라노(이탈리아, '07.2.1) ⑧ 민스크(벨라루스, '08.7.8) ⑨ 산둥성(중국, '08.7.19) ⑩ 강소성(중국, '08.7.21) ⑪ 광둥성(중국, '08.7.22) ⑫ 절강성(중국, '09.4.10) ⑬ 천진시(중국, '09.4.12) ⑭ 아디스아바바(에티오피아, '10.9.29) ⑮ 홋카이도(일본, '10.10.15) ⑯ 마푸토(모잠비크, '11.06.13) ⑰ 부카레스트(루마니아, '12.5.9) ⑱ 부에노스아이레스(아르헨티나, '12.6.25) ⑲ 바르셀로나(스페인, '12.11.13) ⑳ 브라질연방특구(브라질, '14.2.27) 등 20개

3 인력 개발

3.1 지역 거버넌스 역량 강화

- 지역과 사업별로 다양한 주체가 협력하는 거버넌스를 조성하여 지역 환경 개선과 정비사업 시행
 - 참여주체로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개발사와 시민 단체 등이 있음.

3.2 싱크탱크 설립

- 전문 인력 개발을 위해서 전담 부서와 기구를 기관 내 조직하거나 기획, 행정, 사무 기능을 분리하여 독립 기관으로 설립
- 싱크탱크는 실행 주체로 참여하지는 않지만 정부 정책의 근간이 되는 연구를 수행

V 아시아 메가시티 싱크탱크 프로파일링

- 1 프로파일링 대상
- 2 도시 싱크탱크 프로파일링
- 3 다자간 협의체의 필요성

V 아시아 메가시티 싱크탱크 프로파일링

1 프로파일링 대상

- 도시 싱크탱크 : 43개소
 - 지역별 구분 : 아시아 34개소, 유럽 3개소, 미주 4개소와 Metropolitan Planning Organization(MPO), 그리고 아프리카 1개소
 - 아시아 싱크탱크 : 대한민국 16개소, 중국 9개소, 동남아시아 5개소, 인도 2개소, 중동아시아 2개소
- 국제기구 및 도시 연대 : 16개소
 - 도시문제에 관심이 높고 도시문제 해결 솔루션 발굴에 적극적인 기구 및 연대

표 5-1 아시아 메가시티 싱크탱크 프로파일링 대상

지역 구분	아시아					유럽 (3)	미주 (4+MPOs)	아프리카 (1)
	한국 (16)	중국 (9)	동남아시아 (5)	인도 (2)	중동아시아 (2)			
도시 (37)	서울연구원	베이징성시규획설계연구원	Penang Institute(페낭)	Institute of Urban and Regional Planning(뭄바이)	The Institute for Economic Research and Development (테헤란)	Genplan Institute of Moscow (모스크바)	Institutode Pesquisa e Planejamento Urbano de Curitiba (쿠리찌바)	
	부산발전연구원	(BICP)	HoChiMinhCity		International Scientific Cooperation Office (ISCO,마스하드)			
	대구경북연구원	상하이성시규획설계연구원	Institute for Development Studies (HIDS, 호치민)					
	인천발전연구원	(SUPDRI)						
	광주발전연구원	상하이동지성시규획설계연구원(STUPDRI)	Da Nang Institute for Socio-Economic Development (DISED, 다낭)					
	대전발전연구원	울산발전연구원						
	울산발전연구원	총칭성시규획설계연구원(CPDI)						
	경기개발연구원	충청교통계획연구원(CTPI)						
	강원발전연구원	시안성시규획연구원(XCPDRI)	Urban and Regional Development Institute (URDI, 자카르타)					
	충북발전연구원	광저우성시규획설계연구(GZPI)						
	충남발전연구원	선전성시규획설계연구원(UPR)						
전남발전연구원	대련성시규획설계연구(DLPDI)	Centre for Liveable Cities(CLC, 싱가포르)						
전남발전연구원	제주발전연구원							
국가 (6)	국토연구원			National Institute of Urban Affairs (NIUA)		Cities Institute (영국)	Global Cities Institute (캐나다)	Housing & Building National Research Center (미국)
국제 기구 및 도시 연대 (16)	UN-Habitat							
	United Cities and Local Government (UCLG)			Urban Land Institute(ULI)				
	CityNet			Centro Iberoamericano para el Desarrollo Estratégico Urbano(CIDEU)				
	World Cities Summit			The Île-de-France Region and the Global Fund for Cities Development(FMDV)				
	World Association of the Major Metropolises(Metropolis)			Asian Mayors Forum				
	International Council for Local Environment Initiatives(ICLEI)			Guangzhou International Award for Urban Innovation				
	Global Compact Cities Programme			City Protocol				
	Kreanta			City Mart				
				The Future Cities Institute				

V 아시아 메가시티 싱크탱크 프로파일링

2 도시 싱크탱크 프로파일링

2.1 주요 역할

- 도시 싱크탱크는 복잡하고 다양한 도시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주요 시책 과제를 체계적으로 조사 및 분석
- 각계의 전문가를 활용하여 도시의 주요 당면 과제에 대해 연구하고, 학술 활동을 수행하여 도시 발전에 기여

2.2 주요 업무

- 도시계획과 개발에 대한 다방면의 연구
- 도시 문제 해결과 정책 개발
- 국가나 시정부의 정책과 사업에 대한 자문 및 평가

2.3 도시 싱크탱크

- 싱크탱크는 초기에 정부 내 도시 계획, 건축 전문가 조직으로 시작되었고, 이후 독립 또는 몇 개의 조직이 통합되어 기관으로 발전
- 유럽과 미주의 도시 싱크탱크는 국·공립 대학 내 연구소가 다수
- 미국은 주정부 산하 인구 50,000명 이상의 도시에는 의무적으로 Metropolitan Planning Organization(MPO)를 설치하고 MPO가 연방 지원금을 받는 사업들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계획 수립 및 시행 담당

2.4 국제 기구 및 도시 연대

- 도시 관련 국제 기구는 가난, 슬럼, 위생 등 사회 문제 해결, 지방 정부 재원 지원, 지속가능성, 압축 도시 등 특정 주제를 중심으로 구성
- 도시 연대는 정기 포럼 등을 통해 도시 간 우호를 맺는 수준의 한정적인 역할

25 아시아 메가시티 싱크탱크

- 급격한 도시화를 겪은 아시아의 메가시티는 급증하는 도시 문제 해결 수요에 대응하여 중앙 집권적 행정 체계를 바탕으로 국가 또는 시정부 주도로 싱크탱크 설립

3 다자간 협의체의 필요성

- 현재 싱크탱크들이 맺는 양자 협력으로는 두 싱크탱크가 갖고 있는 도시 정보나 정책 경험을 공유할 수 있으나 범위를 규정할 수 없는 메가시티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에 한계가 있음.
- 국제기구는 특정 주제에 대한 도시의 협력을 이루어 낼 수 있으나 대다수 국제기구가 실행 가능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기보다는 최상위 목표를 설정한다는 점에서 싱크탱크의 역할과 상이
- 도시 연대는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도시 간 우호를 맺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도시를 대표하는 기관으로 싱크탱크 참여의 교두보가 되어 주지만, 싱크탱크를 연대의 회원으로 하거나 그 주요 기능과 역할이 부각되지 않음.
- 서울은 인구 천만 이상의 메가시티로 세계에서 11번째, 아시아에서 8번째이며 급격한 도시화를 겪으면서도 성공적인 경제 성장을 이루어 서울의 도시발전모델을 벤치마킹하려는 수요 증가
- 고도성장 도시와 잠재적인 도시가 공존하는 아시아 지역에서 서울은 중요한 중간도시가 되며, 서울의 싱크탱크인 서울연구원도 아시아 메가시티 싱크탱크의 다자간 협의체에서 주도권을 갖는 역할에 적합

VI 아시아 메가시티 싱크탱크 협력 체계 모델 구축

- 1 아시아 메가시티 싱크탱크 협의체(MeTTA) 개요
- 2 창립 회원 기관
- 3 아시아 메가시티 싱크탱크 협의체(MeTTA) 포럼

VI 아시아 메가시티 싱크탱크 협력 체계 모델 구축

1 아시아 메가시티 싱크탱크 협의체(MeTTA) 개요

1.1 명칭

- 메가시티 싱크탱크 협의체
Megacity Think Tank Alliance(MeTTA)

1.2 정의

- 메가시티의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정부 및 민간 싱크탱크의 연구협의체

1.3 목표

- 메가시티 싱크탱크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메가시티 도시문제의 정보를 공유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공동 노력
- 메가시티 싱크탱크 간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도시정부 간 우호협력 추구

1.4 사업

- 공통의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인적교류 및 공동 연구를 수행
 - 도시문제 솔루션 공유
 - 도시문제 전문가 교류

1.5 운영방식

1.5.1 총회

- 연구 교류 활성화 및 공통 의제발굴을 위해 1년에 최소 한 번씩 총회와 학술세미나 개최

- 서울, 베이징, 싱가포르, 상하이, 호치민의 5개 메가시티 싱크탱크가 순차적으로 정기 총회를 개최해 매년 특정 사안에 대해 공동논의

16 참여 범위

- 최근 급속한 도시화 과정을 겪고 있는 아시아 내 메가시티를 중심으로 초기 네트워크 구축
- 도시 싱크탱크뿐만 아니라 도시문제에 관심이 높고 도시문제 해결 솔루션 발굴에 적극적인 유엔해비타트(UN-Habitat), 시티넷(CityNet), 메트로폴리스(Metropolis) 등 국제기구 참여 및 지원 독려

17 기대효과

- 도시문제는 다수의 공통된 이슈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각 도시의 경험을 공유하여 보다 창의적인 대안 마련 가능
- 도시 싱크탱크의 연구 역량을 강화하여 지역 특성에 적합한 솔루션 제공
- 메가시티 싱크탱크의 다자간 교류 협력을 통해 상호 발전할 수 있는 메가시티의 미래 모색

2 창립 회원 기관

- 회원 기관 후보 : 인구 500만 이상의 아시아 메가시티의 도시 싱크탱크
- 선정 근거
 - 과거 서울연구원과의 협력 경험 여부
 - 연구 활동의 적극성
 - 싱크탱크가 위치한 도시 인구 규모별 배분
- 위 근거에 의해 선정된 창립 회원은 총 8개 기관이며, 싱크탱크는 서울연구원, 베이징 성시규획설계연구원, 상하이 성시규획설계연구원, 싱가포르 살기좋은 도시센터, 호치민 개발연구원 등 5개 기관이고 국제기구 및 연대는 메트로폴리스, 시티넷, 이클레이 등 3개 기구

표 6-1 MeTTA의 창립 회원

(단위 : 천 명, \$BN)

싱크탱크 명	소재 도시	인구	경제규모	도시 순위 (세계)	도시 순위 (아시아)
상하이 성시규획설계연구원	상하이	17,836	516.5	1	1
베이징 성시규획설계연구원	베이징	11,716	427.2	6	4
서울연구원	서울	10,575	773.9	11	8
호치민 개발연구원	호치민	7,521	36	24	15
싱가포르 살기좋은 도시 센터	싱가포르	5,184	295.7	38	26
국제기구인 연대				메트로폴리스, 시티넷, 이클레이	

2 1 베이징 성시규획설계연구원(Beijing Municipal Institute of City Planning & Design, BICP)

2 1 1 설립 배경

- 베이징의 도시 계획과 발전 전략 수립을 위해 중국 공산당이 설립
- 설립연도 : 1986년

2 1 2 설립 목적

- 도시 계획의 기반이 되는 학술 연구와 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 연구, 정책 방안 수립
- 베이징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도시개발 사업 시행

2 1 3 비전 및 목표

- 지역 사회와 협력하는 균형 잡힌 도시 계획 연구 및 수립을 통해 베이징을 보다 활기차고 지속가능한 도시로 개발
- 베이징의 역사 경관 보존

2 1 4 주요 역할

- 도시 및 지역 계획 수립
- 역사 및 문화 지역 보호 계획 수립
- 부동산 및 주택 계획 수립
- 도시 인프라 및 주택 건설 사업 시행

- 환경 보존 계획 수립
- 에너지 개발 전략 연구, 생태 연구
- 교통 계획 수립
- 인구 예측 등을 통한 사회 경제 발전 계획 수립

2.1.5 조직 구성

- BICP는 당위사무실, 종합계획부, 상세계획부, 도시디자인부, 시정계획부, 교통계획부, 공정종합부, 계획연구부, 계획정보부, 행정실, 편집부, 노동조합으로 구성
- 중국의 연구원은 모두 공산당 산하기관으로 연구원 내 파견 공산당원의 당위 사무실¹⁰을 갖추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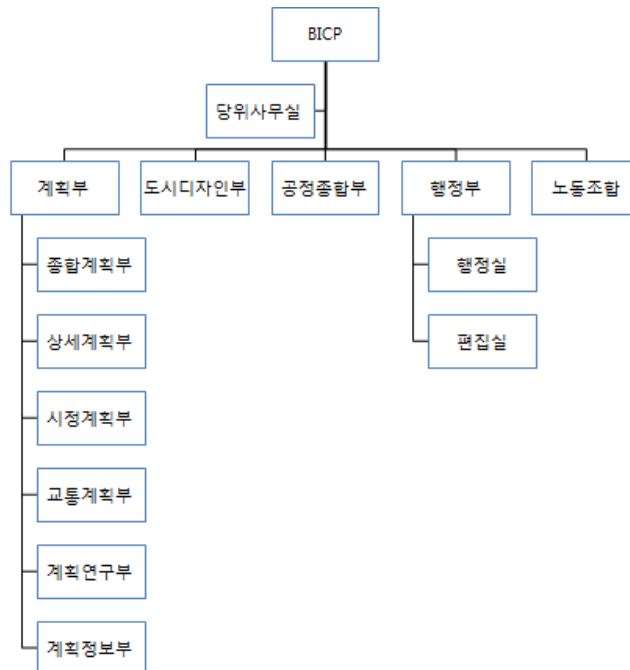


그림 6-1BICP의 조직 구성

- BICP는 서울연구원과의 오랜 연구 교류와 주요 인사 중 한 명인 Pan Yiling 부원장의 적극적인 협력을 토대로 MeTTA 가입

¹⁰ 기관 감사 등을 위해 공산당에서 파견하는 위원을 위한 사무실

2 2 상하이 성시규획설계연구원(Shanghai Urban Planning and Design Research Institute, SUPDRI)

2 2 1 설립 배경

- 도시 계획 디자인과 전략 수립을 위해 상하이 시청 도시 계획국 산하 기관으로 설립된 중국 최초의 도시계획 연구원
- 설립연도 : 1957년

2 2 2 설립 목적

- 과학적으로 계획하고 사람을 근본으로 삼는 “철저하게 계획하고 만인에게 혜택”을 모토로 설립
- 도시학계와 도시계획 사업의 발전을 선도하는 전문 기관
- 중국의 개혁과 개방, 도시화에 따른 도시 개발 사업 시행

2 2 3 비전 및 목표

- “Planning whole heartedly, benefiting thousand centuries”
- 높은 수준의 자문, 연구 등 기술 서비스 제공
- 20개 이상의 계획 디자인과 연구팀을 조직하여 전문성 증대

2 2 4 주요 역할

- 통합적인 지역계획으로 실행평가, 지역 체계계획, 지역분구 계획, 도시 건축 계획 수립
- 세부계획으로 종합교통시스템 계획, 상하이 시정부의 실행계획, 인프라 계획, 재해 대책, 공공안전 계획 수립
 - 국내외에 공유할 수 있는 보고서 및 간행물 제작
 - 정기적인 연구 워크숍 운영
 - 도시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해결방안을 연구
- 인력 역량 강화를 위해 학술 간행물을 출판하고, 적극적인 국제 학술 교류를 시행하며, 시민과의 소통을 위해 연구원 소식, 학술 연구 과제, 연구 성과, 연구토론, 학술 설명회 등 연구원 정보를 공유하는 동시에 공산당에서 수행하는 사회 활동과 관련한 회의 등을 공지

표 6-2 SUPDRI의 주요 보고서 및 간행물

「대상하이도시계획」	「상하이도시계획」	「지역 신문」
		
<p>상하이의 역사를 회고하며 역사의 각도로 미래를 전망</p>	<p>실시간에 최신의 이슈를 점검하여 계획발전을 이끌어 학술 교류 증가</p>	<p>사회와 교류하고 대중들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채널</p>

출처 : www.supdri.com

2.2.5 조직 구성

- SUPDRI는 실무를 중심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4개의 계획부서로 부서마다 연구 주제가 구분
- 발간물인 「상하이도시계획」을 위한 편집부가 독립적으로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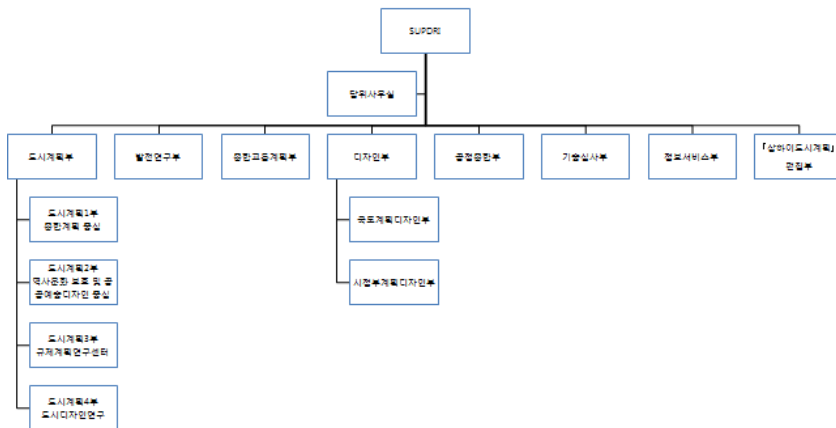


그림 6-2 SUPDRI의 조직 구성

- SUPDRI는 서울연구원과의 오랜 연구 교류와 원장인 Zhang Yuxin의 적극적인 협력을 토대로 MeTTA 가입

2 3 싱가포르 살기좋은 도시센터(Centre for Liveable Cities, CLC)

2 3 1 설립 배경

- 싱가포르 국토 개발부 (Ministry of National Development) 산하기관으로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중앙 부서 간 위원회 (Singapore's Inter-Ministerial Committee on Sustainable Development)의 전략계획을 기반으로 설립
- 설립연도 : 2008년

2 3 2 설립 목적

- 살기 좋고 지속 가능한 도시에 대한 지식을 창조하고 다른 도시 전문가들과 지식 공유

2 3 3 비전

- 살기 좋고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글로벌 지식의 중심

2 3 4 주요 역할

- 연구 활동
 - 도시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해결방안을 연구
 - 정기적인 연구 워크숍 운영
 - 물, 교통, 주택, 통합 마스터 계획, 경제 등의 도시 시스템 연구
 - 국내외에 공유할 수 있는 보고서 및 간행물을 제작하여 싱가포르 개발의 성과를 설명하고 협력 구조를 시각적으로 보여줌.

표 6-3 CLC의 주요 보고서 및 간행물

「Singapore Urban Systems Studies booklet series」	「Biannual Urban Solutions magazine」	「Monthly CLC e-Newsletter」
		
<p>물, 교통, 주택, 계획, 산업과 환경의 영역으로 구분되어, Leaders in Urban Governance Programme¹¹의 교재로 사용</p>	<p>실무자 중심의 프로젝트를 위해 협력기관의 업무, 전문가 에세이와 인터뷰를 수록</p>	<p>센터 업무의 효율적 공유를 위해 관련 업무 지식 교류 및 상호 지원으로 전략적인 네트워크 구축, 살기 좋고 지속가능한 도시에 대한 지식을 창조 및 공유</p>

출처 : www.clc.gov.sg

-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 CLC의 도시 정보를 공유하고 다양한 행사를 통해 파트너와 협력 강화

2.3.5 조직 구성

- 자문 위원회, 고문 위원회, 전문가 위원회, 실무조직으로 구성
- CLC는 서울시와 오랜 교류를 해왔으며 연구부장인 Limin Hee의 적극적인 협력을 토대로 MeTTA 가입

2.4 호치민 개발연구원(Ho Chi Minh City Institute for Development Studies, HIDS)

2.4.1 설립 배경

- 호치민 인민위원회에 속해있던 호치민 경제 연구원과 사회과학 연구원, 그리고 국가 정부도시계획·건축 부서 산하였던 도시계획 연구원을 통합하여 설립
- 설립연도 : 2008년

¹¹ Leaders in Urban Governance Programme은 참가자에게 싱가포르의 도시 개발과 관리의 원칙과 고려 사항, 규제를 교육하는 프로그램

2 4 2 설립 목적

- 호치민시와 인민위원회의 사회·경제와 도시 환경과 계획 자문
- 사회·경제, 도시계획에 대한 학술 연구

2 4 3 주요 역할

- 호치민시와 인민위원회가 수립하는 단기, 중기, 장기 개발계획과 매년 개발 전략을 위한 사회, 경제, 환경, 도시 문제 연구
- 호치민시와 인민위원회의 정책 강화와 실행을 위한 현황 분석 및 평가, 해결방안 제시
- 호치민시 거버넌스와 사회경제 개발 정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정보 시스템과 예측 시스템 구축
- 커뮤니티와 다른 기관을 위해 연구 결과 공유, 자문 및 평가
- 대학원 이상의 교육 서비스와 사회, 경제, 도시 분야의 전문가 교육 프로그램 운영

2 5 메트로폴리스(Metropolis)

2 5 1 설립배경

- 130여개 대도시들의 소통과 발전을 위한 국제기구
- 설립연도 : 1985년

2 5 2 설립목적

- 메트로폴리스는 회원 도시들 간의 국제토론장으로서 경험과 지식을 서로 공유하고 협력하여 상호 도시발전에 기여

2 5 3 비전

- 세계 도시정부 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도시개발, 환경, 경제, 문화에 관련된 협력 프로젝트 수행

2 5 4 주요 역할

- 도시발전의 현 추세 연구

- 도시문제의 혁신적 해결방안 연구
- 개발도상국 대도시에 금융 및 기술지원

표 6-4 Metropolis의 주요 보고서 및 간행물

「Commissions」	「News letters」	「Metropolitan Regions」
		
<p>메트로폴리스 자체 연구 및 활동 수록</p>	<p>각 도시에서 일어나는 행사나 이슈 정리</p>	<p>세계 주요도시들의 조직도 및 거버넌스 시스템 연구</p>

출처 : www.metropolis.org

2.5.5 조직구성

- 총회, 이사회, 총장, 그리고 지역대표 임원들로 구성

2.6 시티넷(CityNet)

2.6.1 설립 배경

-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지방 정부 및 NGO의 효율적 연계망 구축과 도시 간 정책 교류 및 국제 공조 필요에 대응하여 설립
- 설립연도 : 1987년

2.6.2 설립 목적

-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 및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 발생하는 인간정주문제 해결
- 인간정주권 관리를 위해 도시 개발과 함께 초래된 인구 증가, 주거 및 식수 부족, 위생 등 직면한 공동의 문제 해결

263 주요 역할

- 지속가능한 친환경 사업 추진
- 경제적 효율성 증대
- 정책 개선 캠페인 진행
- 글로벌 네트워크 형성
- 시민문화 발전에 기여
- 효과적인 후원 연계

27 이클레이(International Council for Local Environmental Initiative, ICLEI)

271 설립 배경

- 뉴욕 UN본부에서 개최된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제1차 지방정부 세계회의’ (1990년)에 참석한 43개국 200여개 지방정부에 의해 창립
- 설립연도 : 1990년

272 설립 목적

- 범지구적 지속가능성을 위한 지역의 실천을 촉진하고, 지방정부의 활동 지원
- 지속가능한 도시, 회복력 있는 도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도시, 생물 다양성이 보호되는 도시, 저탄소 도시,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인 사회간접시설을 구비한 도시, 사회적 형평성이 살아있는 녹색도시경제가 실현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노력

273 비전

- 지방정부와 세계를 연계
- 지역의 적극적 실천을 지원
- 해결방안의 제공

274 주요역할

-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 국제협력 및 각국 기준의 프로그램 및 캠페인 추진

- 3년마다 열리는 세계총회에서 6년 단위 전략계획을 세워 프로젝트 수립 및 방향성 논의
- 간행물 및 보고서 제작

표 6-5 ICLEI의 주요 보고서 및 간행물

「ICLEI Annual Reports」	「ICLEI Case Studies」	「ICLEI Global Report」
		
연간 주요활동 및 프로그램 정리	지역 프로젝트 사례조사	세계적으로 논의되는 주제 분석 및 해결방안 제시

출처 : www.iclei.org

2.7.5 조직구성

- 총장과 이사회, 그리고 지역임원들로 구성

3 아시아 메가시티 싱크탱크 협의체(MeTTA) 포럼

3.1 MeTTA 포럼 개요

- 행사명 : 메가시티 싱크탱크 협의체(MeTTA) 포럼 및 발족식
- 일시장소 : '14. 7.11(금) 13:00~18:30(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
- 참석 : 서울시장, 서울연구원장, Ulrich Beck, 베이징 성시규획설계연구원, 상하이 성시규획설계연구원, 싱가포르 살기좋은 도시센터, 호치민 개발연구원, CITYNET, ICLEI 등 관계자 120여명
- 주제 : 메가시티: 위험을 넘어 안전도시를 향하여
Megacity : Beyond Risk towards Safe City
- 프로그램

표 6-6 MeTTA 포럼 프로그램

구분	주요내용
개회식	개회사 이창현 (서울연구원 원장) 축사 박원순 (서울시장)
기조연설 및 대담	기조연설 : Why do we need a Cosmopolitan Cooperation? 올리히 벡 (독일 뮌헨대학 교수, 사회학연구소장) 서울시장과 올리히 벡 교수 대담 : "The Challenge of Risk Society and Seoul Initiative" (사회 : 한상진 교수)
발표세션 I 아시아 메가시티의 위험과 싱크탱크의 역할	Megacity, Risk Society and the Role of Think Tank : From Risk to Safe City 이창현 (서울연구원 원장) Social Capital and Reduction of Disaster Risk Zhao Yandong (중국과학기술연구원 연구위원) Resources Risk and Environment and its Solution Strategy in Beijing Yiling Pan 베이징 성시규획설계연구원 부원장 Spatial Strategy for Metropolitan Shanghai in light of Innovation-driven and Transformational Development
발표세션 II 싱크탱크 사례 발표	Zhang Yuxin 상하이 성시규획설계연구원 원장 Active Mobility for a Sustainable Singapore Limin Hee 싱가포르 살기좋은 도시센터 연구부장 Challenges on HCMC Urban Transport and Land Use Tran Anh Tuan 호치민 개발연구원 부원장
토론세션 메가시티의 위험과 싱크탱크의 역할	강명구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장) 한만희 서울시립대학교 국제도시과학대학원 원장 유연식 CITYNET 사무처장 Rahul T.Vaswani ICLEI 동아시아본부 프로그램 팀장 최열 환경재단 대표
발족식	Megacity Think Tank Alliance 창립총회 서울선언 낭독

표 6-7 MeTTA 포럼 현장



현장 전경



개회사 이창현 (서울연구원 원장)



축사 박원순 (서울특별시시장)



기조연설 울리히 벡 (독일 뮌헨대학 교수, 사회학연구소장)



서울시장과 울리히 벡 교수 대담



Megacity Think Tank Alliance 창립

3 2 MeTTA 포럼 성과

3 2 1 서울 선언(Seoul Declaration)

- 메가시티의 도시문제에 대해 각 도시의 경험을 공유하여 보다 창의적인 대안 마련
- MeTTA를 통해 도시 싱크탱크의 연구역량을 강화하여 지역 특성에 적합한 도시문제 솔루션 제공
- 메가시티 싱크탱크의 다자간 교류협력을 통해 상호 발전할 수 있는 메가시티의 미래 모색



*Seoul Declaration
of Megacity Think Tank Alliance*

The Megacity Think Tank Alliance (MeTTA), initiated by the Seoul Institute, has assembled in Seoul, Republic of Korea, on July 11, 2014 to form an international cooperative network among representatives of think tank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enior professionals, policy-makers and public administrators, in dealing with common urban issues of megacities.

The number of megacities is increasing as the world is undergoing rapid urbanization on an unprecedented scale. While megacities embody the concentration of economic power, they are also the source of major urban problems. Rapid urbanization is often linked to population explosion, housing shortage, traffic congestion, air and water pollution, and a generally lower quality of life for residents. The seriousness of such urban problems is growing in proportion to the megacities' expanding urban scale. Thus, the need for a more creative approach to solving urban problems has become an urgent global issue.

Private and government think tanks in Megacities are generating diverse policies to solve urban problems related to their cities. However, due to inherently complex and context-specific aspects, individual cities cannot tackle all urban problems on their own. It is therefore essential to collaborate among cities in drawing up common solutions, share information on their city statuses, and exchange knowledge on related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 policies. Faced with myriads of urban problems, megacities can benefit from working together to achieve global prosperity through the mutual exchange of knowledge and experience.

We, the Member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Participants of the MeTTA, recognize the importance of cooperation among Megacity Think Tanks in order to find policy solutions to pressing megacity problems. With this Declaration, we affirm our commitment to building a think tank network that shares information towards the common goal of solving urban problems.

In this Seoul Declaration, we proclaim to commit as follows:

- 1) We will work on collaborative plans for solving urban problems confronting megacities, based on the mutual exchange of knowledge and urban experiences.
- 2) We will propose urban solutions appropriate to local characteristics, by strengthening the research capacity of urban think tanks.
- 3) We will envision the future of megacities development, through active cooperation among megacity think tanks.

July 11, 2014

The Seoul Institute

Singapore Centre for Liveable Cities

Ho Chi Minh City Institute for Development Studies

Beijing Municipal Institute of City Planning and Design

Shanghai Urban Planning and Design Research Institute

3.2.2 회원 기관 간 교류 확대

- 싱가포르 공무원 워크숍 Executive Development & Growth Exchange (EDGE) Programme
 - 일 시 : 7월 22일 09:30~19:30
 - 장 소 : 서울연구원 대회의실
 - 내 용 : 서울의 주택, 환경, 사회 정책 공유 및 우먼 보금자리주택 견학
- ‘울란바토르 도시계획설계연구원’ 과 교류협정
 - 일 시 : 7월 29일
 - 장 소 : 서울연구원 집현실
 - 내 용 : 공동연구, 세미나 및 연구 인력 교류 협력 협정 체결

- ‘호치민 개발연구원’ 방문
 - 일 시 : 9월 중
 - 목 적 : 서울연구원과의 상호 협력 구체화

- 제11회 Metropolis 총회 “City for All” 참석
 - 일 시 : 10월 7일~10일 인도 하이데라바드
 - 역 할 : 서울세션 “Seoul Sharing” 기획
 - 내 용 : 아시아 메가시티 서울의 위험과 그에 대응하는 노력을 소개하고,
MeTTA 소개 및 신규 싱크탱크 가입 독려

- 싱가포르 도시개발청(Urban Redevelopment Authority, URA), 육상교통국(Land Transportation Authority, LTA) 워크숍
 - 일 시 : 10월 14일 ~ 17일
 - 대 상 : 싱가포르 도시개발국(URA), 육상교통국(LTA) 15~18명
 - 목 적 : 서울 대중교통 계획 부서 회의, 서울연구원 세미나 및 TOPIS, 스마트 카드, 서울 메트로 방문

- 상하이 도시계획, 토지자원 행정부 10월 중 방문 예정
 - 대 상 : 상하이 도시계획 및 토지자원부 공무원 6명
 - 목 적 : 서울시 도시계획 및 토지 합병 경험 공유

3 2 3 MeTTA 정관 수립

- 지속적인 협의체 운영을 위한 정관 수립
 - 명칭 및 형성 근거, 목적, 협력 범위
 - 회원과 회원의 의무
 - 사무국, 이사회, 재정 운영
 - 정관 수정에 관한 항목

3 2 4 2015년 의장기관 선정

- 베이징 성시규획설계연구원



Statute of
Megacity Think Tank Alliance (MeTTA)

Article 1. Name & Legal Form

The Megacity Think Tank Alliance (MeTTA), founded on July 11, 2014, is an international alliance of representative think tanks of megacities. MeTTA aims to find solutions to urban development problems faced by megacities and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for their citizens.

The institutions below are the founding members of MeTTA:

- 1) The Seoul Institute (SI);
- 2) Beijing Municipal Institute of City Planning and Design (BICP);
- 3) Singapore Centre for Liveable Cities (CLC);
- 4) Shanghai Urban Planning and Design Research Institute (SUPDRI);
- 5) Ho Chi Minh City Institute for Development Studies (HIDS)

Article 2. Purpose

- 1) By building an international cooperative network of megacity think tanks, MeTTA provides its members with information on solutions to urban problems, and coordinates problem-solving efforts.
- 2) By encouraging collaborative partnerships among megacity governments on implementing sustainable urban solutions, MeTTA aims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for megacity citizens.

Article 3. Scope of Cooperation

MeTTA members agree to promote and develop research cooperation as follows:

- 1) Have regular meetings among scholars and experts via conferences and workshops;
- 2) Cooperate in planning and executing research projects;
- 3) Exchange research materials, publications, and other scientific information.

그림 6-3 MeTTA 정관(1)

Article 4. Membership

The member categories consist of Active Members and Associate Members.

- 1) Active Members are representative research institutions in a megacity region, working directly with the local or city government to formulate and implement city policies.
 - Beginning with highly urbanized Asian megacities, MeTTA shall ultimately expand its membership to include megacities and organizations in all other parts of the world.
- 2) Associate Members consist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who are interested in participating in MeTTA.
 - In addition to urban think tanks, MeTTA shall encourage participation and support by international bodies that are interested in urban problems and are active in exploring solutions to the problem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CITYNET, ICLEI and Metropolis
- 3) All membership admissions need approval of the General Assembly.

Article 5. Member Responsibilities

- 1) All members shall actively participate in the meetings and projects in the spirit of cooperation.
- 2) The Active Members shall take turns hosting the annual General Assembly, stated here in their sequential order of membership.
 - The Seoul Institute (SI), Beijing Municipal Institute of City Planning and Design (BICP), Singapore Centre for Liveable Cities (CLC), Shanghai Urban Planning Design & Research Institute (SUPDRI), and Ho Chi Minh City Institute for Development Studies (HIDS).

Article 6. Secretariat

The Secretariat of MeTTA shall be located at The Seoul Institute (located at 137-071, Nambusunhwan-ro, Seocho-gu, Seoul, Republic of Korea).

- The location of the Secretariat may be transferred or rotated by majority decision at the General Assembly.
- The role of the Secretariat will include: 1) Supporting the organization of the General Assembly, such as finalizing the agenda and date, and facilitating communication among members. 2) Developing and maintaining an online platform where all members can collect and share information regarding the member cities and their urban issues.

그림 6-4 MeTTA 정관(2)

Article 7. Board of Directors

- 1) The Board of Directors shall consist of the five(5) founding members of MeTTA.
- 2) The Board of Directors shall appoint the Chairman each year and can recruit additional institutions.
 - The Chairman can call an assembly of the Board of Directors if requested by board members, or when discussions are necessary on important issues.
- 3) International organizations which are Associate Members can participate in board meetings with the approval, by the majority, of the Board of Directors.
 - Associate Members will act as advisors on drafting documents and on making decisions regarding operational procedures of MeTTA.

Article 8. General Assembly

- 1) The General Assembly is held by the Active Members. They alone have voting rights. The General Assembly and academic seminar will be held on a yearly basis as a venue for setting an annual agenda as well as facilitating the exchange of research expertise.
 - At each General Assembly, the date, theme, and venue for the subsequent General Assembly shall be decided.
- 2) Associate Members are also invited to participate in discussions at the General Assembly. They are kept completely informed of the work of the General Assembly, and may be requested to prepare technical reports on specific subjects.

Article 9. Financial Arrangement

- 1) The members agree to develop research projects each year as cooperative activities of MeTTA.
 - Each member shall finance their own projects or obtain support from national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 2) The members agree that all specific arrangements and plans for activities shall be negotiated and are subject to the availability of funds.
- 3) The host city of the General Assembly shall use its own funds for hosting the General Assembly.

그림 6-5 MeTTA 정관(3)

Article 10. Amendment

Any member may initiate a proposal to amend provisions in the Statute.

- Amendment proposals shall be submitted to the Secretariat no later than three (3) months prior to the date of the General Assembly where the proposal will be discussed and a possible decision will be made. The Secretariat will circulate the proposal in a written form to all members two (2) months before the date of the General Assembly.
- Both Active Members and Associate Members can suggest amendments to the Statute.

Article 11. Official Language

The official language of the General Assembly will be the language of the hosting city. Translation services shall be provided in English and necessary languages of the key participants.

Article 12. Entry in Force

The Statute shall come into force upon the approval of the founding members participating in the Inaugural General Assembly held on July 11, 2014 in Seoul, Republic of Korea.

그림 6-6 MøTTA 정관(4)

VII 아시아 메가시티 싱크탱크 협력 체계 모델 활성화 방안

- 1 외연적 확장
- 2 내연적 성장
- 3 종합

VII 아시아 메가시티 싱크탱크 협력 체계 모델 활성화 방안

- MeTTA 회원 싱크탱크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지속가능한 협의체로 발전하기 위한 방안 도출
- 회원기관 확대를 통한 외연적 확장과 협의체 내실화를 통한 내연적 성장으로 구분

1 외연적 확장

- 프로파일링 분석 대상이었던 싱크탱크들을 회원으로 가입시켜 기관 확대
- 현재 회원 기관은 5개 아시아 메가시티 싱크탱크와 3개 국제기구
- 중기적으로 아시아 싱크탱크와 현 MeTTA 회원 기관의 파트너이거나 아시아에서 활동 중인 국제기구 중심으로 아시아 싱크탱크 17개, 국제기구 5개 회원 추가
- 장기적으로 아시아 외 세계 전역의 싱크탱크와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싱크탱크 32개, 국제기구 16개 기관으로 확대
- 현재 회원 기관을 정회원(싱크탱크)과 준회원(국제기구)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 협의체의 회원기관이 증가하면 리딩그룹(Leading Group), 러닝그룹(Learning Group), 그리고 셰어링그룹(Sharing Group) 등으로 세분화하여 관리



그림 7-1 외연적 확장을 통한 활성화 방안

표 7-1 예상 회원 기관

	정회원	준회원
현재	서울연구원 베이징성시규획설계연구원 (BICP) 상하이성시규획설계연구원 (SUPDRI) 싱가포르 살기좋은 도시센터(CLC) 호치민 개발연구원 (HIDS)	메트로폴리스 시티넷 이클레이
예상 회원 기관	인천발전연구원 부산발전연구원 하노이 개발연구원 상하이동자성시규획설계 연구원 (STUPDRI) 충칭성시규획설계연구원 (CPDI) 충칭교통계획연구원 (CTPI) 시안성시규획연구원 (XCPDRI) 광저우성시규획설계연구 (GZPI) 선전성시규획설계연구원 (UPR) 대련성시규획설계연구(DLPDI) Penang Institute (페낭) Da Nang Institute for Socio-Economic Development (DISED, 다낭) Urban and Regional Development Institute (URDI, 자카르타) Institute of Urban and Regional Planning (뭄바이) The Institute for Economic Research and Development (테헤란) International Scientific Cooperation Office (ISCO,마스하드)	유엔-해비타트 월드 시티 서밋 아시아 시장 포럼 Urban Land Institute

2 내연적 성장

2.1 인적 교류

- 회원 싱크탱크 간 연구 활성화를 위해 상호 파견을 통한 교환 연구원 제도 운영
- 효율적인 메가시티 싱크탱크 운영에 대한 논의를 위해 기관장 간 싱크탱크 운영 자문단 구성
- 지역별, 분야별로 전문가 그룹 및 컨설팅단을 구성
 - 국제기구와 다자간 개발은행에 등록하여 전문 기관들의 협의체인 MeTTA의 특성을 부각

2.2 공동 연구

- 매년 개최하는 총회를 통해 각 도시의 연구 수요 파악

- 공동 연구의 성과를 발표하고 출간

2.3 홍보 강화

- 국제기구와 도시 연대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홍보 강화
- 브로슈어, 동영상 등의 홍보물을 제작
- 온라인 웹페이지를 제작하여 협의체를 소개하고 해외 접근성을 높임.
- SNS에 계정을 생성하여 실시간 공지사항과 뉴스 알림
- 정기간행물과 뉴스레터 등의 발간물을 제작하여 배포

2.4 사무국 운영

- 총회 개최 운영 및 지원
- 홈페이지 운영
- 협력체 고유 콘텐츠 개발
- 회원 기관 콘텐츠 공유 및 교류 허브

2.5 재정 확보

- 해당 연도 의장 연구원 독립 지원
- 국가 정부 재정 지원 및 국제 기구의 재정 지원



그림 7-2 내연적 성장을 통한 활성화 방안

3 종합

- 단기적으로 현재 회원 기관이 교류하고 있는 주변 아시아 싱크탱크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협의체의 운영 방법을 시스템화하여 지속가능한 협의체의 기초를 다짐.
 - 외연 확대 : 아시아 5개 싱크탱크
 - 내적 성장 : 홍보물 제작, 재정 확보, 사무국 운영 등
- 중기적으로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회원을 확장하고, MeTTA의 콘텐츠를 개발하여 협의체의 연구 능력 및 전문성 강화
 - 외연 확대 : 아시아 20여개 싱크탱크 및 국제기구를 회원으로 가입 유도
 - 내적 성장 : 연구물 출간, 고유 콘텐츠 개발, 전문가 그룹 구성 등
- 장기적으로 아시아 외 지역의 싱크탱크 및 국제기구와 협력을 통해 전 세계 메가시티의 도시 발전과 비전을 제시하는 협의체로 성장



그림 7-3 아시아 메가시티 싱크탱크 협력 모델 활성화 방안 종합

참고문헌

참고문헌

변미리, 2013, 「도시경쟁력 평가체계 비교 분석」, 서울연구원

Fred Pearce, 2006, "How Big Can Cities Get?", New Scientist, 190(2556), pp10

Giddens, Anthony, 1999, "Risk and Responsibility", Modern Law Review, 62(1), pp1~10

이창현, 2012, "Risk Society and Urban Transformation in East Asia", New Tendency of Urban Transformation in East Asia International Symposium 발표자료

<http://www.megacities.uni-koeln.de/documentation/> Megacity TaskForce of the International Geographical Union

<http://www.worldpopulationstatistics.com/cities/> World Population Statistics

<http://www.odakorea.go.kr/> ODA Korea

<http://www.mofa.go.kr/> 대한민국 외교부

<http://www.seoul.go.kr> 서울시

<http://www.mckinsey.com/insights/mgiMcKinsey> Global Institute

<http://www.citiesinstitute.org> Cities Institute

<http://www.globalcitiesinstitute.org> Global Cities Institute

<http://www.futurecitiesinstitute.org> The Future Cities Institute

<http://www.sustainablecitiesinstitute.org> Sustainable Cities Institute

<http://www.si.re.kr> 서울연구원

<http://www.bdi.re.kr> 부산발전연구원

<http://www.idi.re.kr> 인천발전연구원

<http://www.gji.re.kr> 광주발전연구원

<http://www.djdi.re.kr> 대전발전연구원

<http://www.udi.re.kr> 울산발전연구원

<http://www.gri.re.kr> 경기개발연구원

<http://www.rig.re.kr> 강원발전연구원

<http://www.cri.re.kr> 충북발전연구원

<http://www.cdi.re.kr> 충남발전연구원

http://www.jthink.kr	전북발전연구원
http://www.jeri.re.kr	전남발전연구원
http://www.gndi.re.kr	경남발전연구원
http://www.jdi.re.kr	제주발전연구원
http://www.bjghy.com.cn	베이징 성시규획설계연구원
http://www.supdri.com	상하이 성시규획설계연구원
http://www.tongjiguihua.com	상하이 통지 성시규획설계연구원
http://www.cqghy.com.cn	충칭 성시규획설계연구원
http://www.xaguihua.com	시안 성시규획설계연구원
http://www.gzpi.com.cn	광저우 성시규획설계연구원
http://www.upr.cn	심천 성시규획설계연구원
http://www.dlpdi.com	다롄 성시규획설계연구원

부록

MeTTA 포럼 발표자료 요약

“우리는 왜 전 지구적 협력이 필요한가?”

울리히 벡 뮌헨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오늘날 기후 변화, 국제금융시장 위기, 다국적 기업의 영향력, 지구적인 빈곤, 테러의 위험, 자원고갈, 조직화된 범죄 등의 문제들은 어떠한 나라도 홀로 해결하지 못한다. 인류의 역사를 돌아볼 때, 큰 규모의 오염이나 사회적 부정의와 같은 문제는 거버넌스(Governance)로 해결하였다. 예를 들어, 적절한 법률제정과 집행, 세금부과, 규제, 민주적 참여 등을 통해 피해를 주는 행태를 불법화하거나 불이익을 주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과거의 문제들은 국가 중심으로 그 범위가 국내로 한정되고 그 영향은 국경을 넘지 못했다. 그러나 오늘날 문제들은 세계 중심으로 그 범위와 영향이 전 지구에 걸쳐 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이런 문제를 제어할 효과적인 거버넌스를 갖고 있지 못하다.

아인슈타인은 문제가 만들어졌던 방식과 같은 사고 형태로 현재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지구적 위험들에 대한 답을 찾는 데 있어 무능력한 현실의 기원을 정확하게 지적한 것이다. 이와 같이 지구적 위험은 그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그것을 생각하는 방식에서 해결해야 한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세계와 정치를 보는 방식이 전 지구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그렇다면 왜 전 지구적인 방식인가? 자연재난에 대한 방송보도나 인공적인 위험들에 대한 논의에서 우리는 전 지구적인 시각과 공감, 그리고 인류애적인 행동을 발견한다. 예를 들어 인권침해, 인종살육 등 인간성에 관한 범죄 등에 대해서는 전 지구적인 사회적 연대와 정치적 정의를 요구하는 운동이 일어난다. 과학과 기술 혁신에서도 전 세계적 관점을 확인할 수 있고, 자본과 노동의 흐름은 인간의 사회적 책임과 생활수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이런 사회 환경에서 ‘글로벌 이웃’이라는 윤리적인 열망이 만들어지고 있다.

전 지구적인 협력이 필요한 이유는 세계중심과 국가중심의 사고와 행동이 별개, 또는 동일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전 지구적인 협력은 국가주권을 강화하고 풍요롭게

한다. 위험사회는 세계 중심적이며 동시에 국가 중심적으로 사유하고 행동함으로써 새로운 대응을 구성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아시아의 황사에 대한 대응으로 한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의 과학계, 시민사회 등이 협력하여 만들어 낸 Great Green Wall Plan 사례가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지역은 세계화되고, 세계는 지역화된다. 국가중심적인 시각에서는 국가적인 이익은 전제되어 있고 불변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세계 중심적인 시각과 함께하는 국가적인 시각은 국가적인 이익을 지속적으로 재정의하고 재규정한다. 따라서 전 지구적인 협력은 자기희생에 대한 것이 아니라 자기이익이 된다.

“사회적 자본과 재해 위험의 감소”

자오 안동 중국과학기술연구원 교수

급격한 도시의 팽창과 기후변화로 인하여 메가시티는 재난 위험관리에 취약해지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재난 위험감소에 관련된 사회적 자산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회적 자산은 사회 네트워크와 구조에 의하여 배양이 되며, 이것은 거시적인 것과 미시적인 것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사회적 자산은 재난위험을 줄이는데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2008년부터 2011년까지의 쓰촨성 지진과 인구에 관한 데이터를 기초로 한 재난 위험 감소에서 사회적 자산의 역할을 보면, 미시적인 소셜 네트워크 안에서 배양된 사회적 자산은 재난 시, 응급조치 및 구조 활동 또는 긴급 상황 속의 정신적 치료에 도움이 된다. 이와 같은 자산은 추후의 재난 복구 시에도 도움이 된다. 사회적 신뢰와 사회적 참여 등으로 구성된 거시적 사회적 자산은 사회협력과 유대를 형성하는데 도움을 준다. 그러므로 메가시티는 재난 위험에 직면한 사회적 자산에 투자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시아 메가시티의 위험과 싱크탱크의 역할”

이창현 서울연구원 원장

1990년에만 해도 세계의 도시화율은 13%에 그쳤지만 2010년에는 55%를 넘어서고 있다. 특히, 인구 5백만이 넘는 상당수의 메가시티가 아시아에 위치해 있다. 아시아 도시가 겪고 있는 도시문제는 자연재해부터, 교통문제, 대기 질 악화, 주택문제, 실업문제 등 다양하며 자연적, 도시적, 사회적 위험이 공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서울은 대한민국의 수도이자 경제성장 엔진으로서 급격한 도시발전의 역사를 갖고 있다. 1990년대 말까지 서울의 도시계획은 성장 중심의 도시발전 패러다임을 가져왔다. 주택공급, 대중교통공급 등을 주요정책으로 삼았으며, 도시화과정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교통체증, 대기오염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 기울여 왔다. 서울시가 그동안 진행해 온 위기관리 정책으로 교통사고 건수는 60년대 이후 크게 줄었으며, 대기질도 개선되었다. 사회적 위험측면에서는 IMF위기와 세계적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한국사회는 청년실업과 사회적 불평등이 급격히 확산되었고, 대한민국은 OECD평균 취하위의 출산율과 최고의 자살률을 보이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서울 시민들은 미래의 위험 정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특히 자연적 위험보다는 사회적 위험에 대해 좀 더 우려를 표명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아시아 메가시티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위험사례로는 기후변화, 원전사고, 미세먼지, 경제적 불평등이 있다. 이러한 아시아 도시가 직면하는 위험요소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자간의 협력이 필요하며 MeTTA가 그 협력의 구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안전한 아시아 메가시티를 위해서는 소통과 신뢰, 창조적 혁신, 시민참여, 대안적 미래와 같은 키워드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

“베이징의 부족한 자원 위기와 환경, 그리고 해결 전략”

일링 판 베이징성시규획설계연구원 부원장

베이징은 전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중국의 수도이며 대다수 국민은 베이징에서 살기 원한다. 현재 인구는 2,000만명이 넘어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으며 인구증가는 많은 도시문제를 유발한다. 가장 먼저 베이징의 물 부족을 들 수 있다. 세계 평균 1인당 물 공급량은 300리터인데 반해, 베이징은 110리터이다. 또 다른 문제는 에너지이다. 베이징의 에너지 70% 이상이 외부 수입 에너지로 베이징은 자체 에너지 생산이 굉장히 적어 전기, 석탄, 그리고 천연가스 등을 중국의 다른 지역이나 다른 나라에서 수입하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미세먼지와 수자원 오염 문제가 더욱 심각해졌다. 미세먼지의 연 평균 농도는 90ug 정도이며 서울의 비해 굉장히 높다. 또한 쓰레기 처리가 문제지만 매립 시설이 부족하고 쓰레기처리장 부지를 만드는 데도 한계가 있어 적극적인 소각을 시행하고 있으나 여전히 심각한 문제로 남아있다.

베이징의 장기 비전은 지속가능한 발전, 그리고 조화롭고 살기 좋은 도시, 즉 건강한 도시로 만들기 위한 것이다. 그 첫 번째로 이제는 도시 확장의 노력이 아니라 오히려 확장을 줄이고 새롭게 유입되는 인구를 위해 살기 좋은 거주 환경을 만들 계획이다. 또한 건설 제한 지역을 설정하여 수원을 보호하고 생태환경 보존을 위해 개발제한 구역을 둘 것이다.

둘째는 에너지 사용 총량을 제한하여 불합리한 에너지 소비를 규제하고 석탄 등 1차 에너지 소비 비중을 줄이며 신에너지 비중을 늘려 절약형 도시를 만드는 것이다. 고체 폐기물 처리와 관련해서는 에너지 전체 과정에 개입하여 쓰레기생성, 운반, 소각, 그리고 분해의 비용을 지원하고, 폐기물을 통제해 나갈 계획이다. 결과적으로 쓰레기 배출을 줄이고, 재활용을 적극 이용할 것이다.

수자원 관리에서 이용 가능한 수자원 총량을 늘려나가고 물 재활용을 독려하며 수원을 계속해서 발굴해 나갈 것이다. 예를 들어, 베이징시 반경 200km 안에 해변이 있는데 해수 담수화를 통해 수원을 개발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메타가 앞으로 여러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상호 간의 협력과 공유가 필요하다. 기술과 성과를 공유해 나가고 모든 전문가가 함께 문제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심포지엄을 개최해 행동을 구체화해야 할 것이다. 베이징도 중국의 수도로서 적극적으로 협조할 계획이다.

“중국의 거버넌스 위험에서 전략적 신뢰구조의 중요성”

장 유신 상하이성시규획설계연구원 원장

상하이는 면적이 6,833km², 인구는 2013년 말 기준 2,415만 명이다. 중심부에만 1,100만 명이 살고 주변 인구까지 포함하면 3,000만 명으로 물 부족도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와이탄의 야경은 훌륭하지만 문제도 많다. 경제발전으로 인해 많은 차가 도로를 다니는 동시에, 100년 전의 낡은 모습도 아직 남아 있다. 상하이는 개혁개방 도시를 시행한 지 30년 동안 교통 인프라가 크게 개선되었지만 발전과정에서 생성된 안전에 대한 위험은 해소하지 못했다.

상하이의 문제는 제한된 자원에 연관되어 있다. 양쯔강은 태평양과 이어져 있고 주로 이 지역에서 집중적인 경제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도시와 자연관계를 보면 도시가 확장되면서 아름다운 수경관이 줄어들고 있다. 1980년대부터 처음에는 100km²에서

지금은 3,000km²로 도시가 확장되고 인구가 늘어나면서 동시에 환경은 악화되었다. 상하이의 도심은 황푸강 중심지역과 홍차오와 푸둥 공항 지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분산된 공원녹지 등으로 토지이용 효율은 매우 낮다.

상하이는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크게 세가지로 나누어 보았다. 첫째는 도시규모와 건설규모를 통제해야 한다. 대도시에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이러한 추세는 우리가 저지하기 어렵다. 인구의 증가는 불가피하고 중국의 중앙과 지방정부 모두 대도시의 규모를 통제하여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다. 현재 도시화율이 50% 정도 되는데, 앞으로 건설부지의 면적을 통제하고 많은 녹지공간을 늘려가야 한다.

둘째는 9개 신도시 건설이다. 1995년도에 서울에 와서 서울 외곽의 4개 신도시를 방문한 적이 있다. 서울시는 신도시 발전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했을 것이다. 서울의 그런 경험을 참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상하이에서 30km 정도 떨어진 곳에 만치하오라는 신도시가 있다. 만치하오는 양쯔강 주변이며 80만 명 정도 인구를 수용할 수 있다. 이곳은 생태환경을 우선시하는 개발로 진행되어 건설부지 면적을 먼저 확보하고 나머지 면적에서 개발이 이루어졌다. 특히 이 지역은 상하이 시민의 수원과 가까이 위치해 있어 녹지 확보와 생태환경 보존이 아주 중요했다. 상하이가 더욱 확장되면 휴식 공간마저 사라질 것이다. 시민의 휴식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상하이 주변에 총 21개의 공원을 만들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2040년도 비전은 도농지역의 공동성장과 지역통합 발전이다. 미래도시 발전 과정의 핵심은 인본주의적 발전이라고 생각한다. 서울은 시민들에게 즐거운 생활터전을 제공한다고 느꼈다. 양쯔강 삼각주 같은 경우에는 통합적으로 발전하여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도시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개방, 포용, 공유, 그리고 교류를 통해 우리는 건강한 도시발전을 이끌어야 한다.

“지속가능한 싱가포르를 위한 적극적 이동성”

리민 히 살기좋은도시센터(CLC) 연구부장

싱가포르는 면적이 716.1km²로 상하이의 1/4 정도이고 인구는 530만 명이다. 이 중 60%가 현지인, 40%가 외국인이다. 인구밀도는 1km² 당 7,401명이며 85%가 공공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싱가포르 인구는 2030년까지 700만명 정도로 예상되고 있고 섬이기 때문에 국토 매립을 계속하면 말레이시아와 붙게 될 수도 있어 국토 면적 확장에

도 한계가 있다. 싱가포르의 토지가 작기 때문에 선성장 후정화를 할 수 없다.

현재 교통수단 비중은 63%가 대중교통, 37%가 자가 차량이다. 서울과 비교하여 자가 차량 이용률이 굉장히 높고, 승용차 보유율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작년에는 싱가포르 가구의 절반이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었다. 현재 토지사용률을 보면 지상교통에 쓰이는 공간비율이 주택, 회사, 상업공간을 합한 비율과 비슷하여 2030년이 되면 지상 교통 기반시설을 공급할 공간이 없어질 것이다.

싱가포르의 2030년 대중교통 계획의 목표는 승용차 비율을 30%까지 감소시키는 것이다. 승용차 이용을 제재하기 위해 도입된 신차 구입권은 6만 싱가포르 달러에 판매되고 있다. 즉 승용차를 사기 위해선 차값보다 비싼 신차 구입권을 구입해야 한다. 교통량을 통제하기 위해 통행료도 도입하였다. 지하철 역시 360km로 연장할 계획이다.

또 다른 방안은 자전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현재 700km의 자전거 도로를 설치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여러 환경이나 교통 규제가 자전거 이용자를 보호해 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 도시를 벤치마킹하여 연구하고 개정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의 사선 횡단보도나 자전거 도로 또한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한다.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높은 삶의 질, 경쟁력이 있는 경제체제, 지속가능한 환경의 세 가지 요소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하나라도 빠질 수 없는 이 요소들은 마스터 플랜과 개발이 통합되어야 이루어질 수 있다.

“호치민시의 교통과 토지이용”

트란 안 트완 호치민개발연구원 부원장

호치민은 싱가포르와 가까운 베트남 남부에 위치해 있으며 23개 지역과 19개 시가지, 5개의 교외지역이 포함되어 있다. 토지법은 1986년 첫 제정되어 1993년에 통과된 후 2013년까지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개혁하는 과정과 맞물려 여러 번 개정되었다. 호치민시는 여러 구획으로 나누어 개발하는 과정 중 자연스럽게 23개 지역으로 분할되었다. 인구는 해외 이주민 200만 명을 포함하여 약 1,000만 명이 호치민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출산으로 인한 자연증가보다 인구 유입으로 인한 증가율이 커진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인구 증가로 인해 2000년부터 2010년까지 농촌지역이 비농지로 급격히 바뀌는 등 굉장히 빠른 전환을 보여주고 있다.

호치민시에는 순환도로가 구축되어 있고 도심에서 외곽으로 뻗어나가는 방사형 도

로, 도심 내 도심도로들이 있다. 호치민시는 크게 구시가지와 신시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구시가지 중심지에서는 도로가 바둑판 모양으로 계획되었으나 주변에 생긴 여러 신시가지에는 표준화되어 있는 도시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신시가지는 외곽지역에서부터 내부지역까지 표준화된 도로 네트워크가 없다. 빠른 도시화에 불구하고 불균형적인 도시계획으로 인하여 슬럼과 같은 빈민지역이 생기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호치민시 전체의 도시계획 문제를 반증한다고도 볼 수 있다.

또한 충분한 도시정부의 재정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자원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기반시설 개발을 위한 자본투자가 미미하다. 기반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중교통 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고, 늘어나는 자가운전으로 교통사고율은 증가하고 있다. 완성된 기반시설도 충분한 관리가 되지 않아 홍수나 침수 등의 문제도 발생한다.

호치민 개발의 첫 번째 패턴은 외국투자자들의 참여, 두 번째 패턴은 민간회사, 세 번째 패턴은 국가가 관여하여 개발하는 형태이다. 우리는 2025년까지 개발이 집중되어야 하는 부분을 정하였으며 위성도시를 건설하고자 한다. 도시개발 계획과 함께 도시교통체계를 만들고 지하철도 7개 노선으로 확충하며 구시가지와 주변 네 개의 위성도시를 연결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버스 급행노선을 통해 지하철과 버스의 원활한 연결도 목표로 하고 있다.

Abstract

Abstract

Strategies for Building Collaborative Asian Megacity Think Tank Network

Joonho Ko · Sunwoong Kim · Jeewon Kim

Megacities are defined as cities with a population exceeding 5 million. Under those perimeters there are 40 megacities worldwide. Asia, in particular, has been generating megacities at a rapid rate closely following the increase rate of urbanization. This phenomenon allows for an increasing interconnectedness between advancing megacities within the continent.

Although a growing population functions as a cornerstone in economic development, citizens recognize the ever increasing problems among urban areas. These problems are labeled as urban risks and can be categorized into external and manufactured subdivisions. Examples of external risks range from natural hazards such as earthquakes to anthropic hazards like air pollution, water scarcity, or radioactive dangers. Manufactured risks include economic polarity, daily anxiety, social justice, social trust and such threats that appear in the daily life of megacity citizens. Although the degree of citizen recognition varies from city to city, the potential range reaches other parts of Asia, so the danger is shared by all.

To manage these risks, Asian megacities collaborate with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donor countries to apply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as well as form groups like APEC and ASEAN. This is in an effort to build the human capability of developing governance and establishing think tanks.

From vetting the profiles of 43 urban think-tanks and 16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alliances, results suggest that Asian urban think tanks are established by national or local governments and are affiliated with research institutions. However, the role of think-tanks compared to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s so limited when they participate or observe, that conclusive evidence calls for a multilateral alliance as opposed to bilateral cooperation.

Thus, we effectively set forth a model of a multilateral network among Asian megacity think tanks. The creation of the Megacity Think Tank Alliance (MeTTA) aims to provide solutions to the complex urban problems that face megacities and simultaneously improve the quality of life for its citizens. By constructing an international network, MeTTA plans to distribute, to its members, information on urban problems and answers, as well as coordinate on solving new problems that arise in our ever changing urban landscape. Through substantial and consistent cooperation with its members, MeTTA, along with private sector partnerships, will support the formation of mutual relationships and collaborations of megacity governments. At its inception, 8 institutions of MeTTA came to a consensus as they drafted the Seoul declaration and its statutes. Many more partnerships and collaborations have been promised.

To sustain this alliance, strategies were set up in ways for member expansion as well as operations and management. First, MeTTA focused on other think-tanks and its expansion into other regions. Second, various operational standards such as the secretariat obligations, active professionals and expert exchanges, collaborative research, MeTTA content development and online/offline public relations were considered.

Table of Contents

Chp.1	Introduction
1	Background and Purpose of the Study
2	Contents and Research Methods
Chp.2	Megacity Analysis
1	Definition of Megacity
2	World Megacity
3	Asia Megacity
Chp.3	Urban Risks of Asian Megacity
1	External Risks
2	Manufactured Risks
Chp.4	Efforts to Solve Urban Risks of Asia Megacity
1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2	Join in International Solidarity
3	Human Capability Development
Chp.5	Asian Megacity Think Tank Profiling
1	Profiling Cases
2	Urban Think Tank Profiling
3	Call for Multilateral Alliance
Chp.6	Asian Megacity Think Tank Alliance Model
1	Introduction
2	Founding Member Institutions
3	Megacity Think Tank Alliance Forum
Chp.7	Strategies for Asian Megacity Think Tank Alliance
1	Member Expansion
2	Operation and Management

3 Summary

References

Appendices

서울연 2014-OR-10

아시아 메가시티 싱크탱크 협력 체계 구축 연구 및 포럼 개최

발행인 이창현

발행일 2014년 8월 10일

발행처 서울연구원

137-071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

전화 (02)2149-1234 팩스 (02)2149-1319

값 6,000원 ISBN 979-11-5700-039-5 93300

본 출판물의 판권은 서울연구원에 속합니다.